



시론

왕과 함께 추는 춤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영화 “대립군”을 보았다. 한국 영화를 볼 때마다 참 잘 만든다는 감동을 받았지만 이번에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 대립군(代立軍)이라는 소재 자체도 처음 들어보는 것이지만, 스토리 전개도 탁월했고, 장면마다 최선을 다한 느낌이었으며 영화가 주는 메시지도 역시 수준급이었다. 대립군이란 변방에서 대신 군역을 살아서 먹고 살아가는 천민 계급을 지칭한다. 조선 시대 가장 낮은 소외 계층인 셈이다. 때는 임진왜란이었다. 무능력하고 백성을 전혀 돌볼 줄 모르는 선조 임금에 왜군이 파죽지세로 쳐들어오자 목숨의 위협을 느껴 장자 광해군이 될 왕세자를 대신 세워 소모품을 만들었다. 역시 대립군(代立君)의 역할을 하게 된 왕세자도 전혀 왕이 될 마음도, 백성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없었는데 진짜 대립군들과 생사고락을 하면서 서서히 왕심(王心)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영화 중간쯤에는 대립군들이 왕세자를 모시고 피난하는 장면이 나온다. 거친 산 골짜기로 들어가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왕세자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 고생하는 백성들의 삶을 목격하게 되는 과정이 인상 깊다. 그는 역시 피난 나온 백성들을 만나 잠시 쉬는 사이에 곡수라는 노래 잘 하는 대립군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한다. 그때 왕세자는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춘다. 백성들은 왕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는 어안이 병병하였다. ‘세상에 왕께서 하찮은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시다니 이 무슨 일인가?’ 놀란 백성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왕세자가 춤추는 광경을 바라보다가 그의 진심을 알게 되고 감동한다. 그 황홀한 광경에 넋을 잃은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변모되신 황홀경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세 제자들을 생각하였다.

변화산 사건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자신이 종교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예고하신 지 열세 후에 벌어진 사건이다. 고난당하실 메시야는 고난을 넘어 장차 영광을 받으실 모습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을 격려하기 원하셨다.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고난의 길이다. 그러나 고난은 끝이 아니다. 고난의 강을 건넌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영광은 잠시 당하는 고난과 비할 수 없이 크고 영광스럽다. 그러기에 고난 당하실 주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고난의 길로 제자들을 초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자신의 수난 후에 받을 영광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진히 그 영광의 어려움을 묘사한 내용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 요지이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뵈려하는 자가 그렇게 회개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막 9:3). 홀연히 변화되신 예수님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셨고, 이 광경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초막 셋을 짓고서 힐성수설할 정도였다. 그리고 들리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모든 것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의 영혼을 압도하였고 고난의 길을 가까이 가려는 제자들로 변화시켰다.

영화 대립군의 처음부터 끝까지 왕의 임재를 상징하는 깃발이 계속 등장한다. 그 깃발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대립군들의 노력이 가상하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지막 장면에 가서 드디어 왜군을 물리치고 그 깃발을 쫓는다. 그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이 부각된다. 그런데 그 깃발에는 용 두 마리가 어우러져 춤을 추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영화 초반부에 대립군 하나가 지나가는 듯이 “용이 왜 하필이면 두 마리여?” 라고 질문한다. 그 답은 영화가 끝나는 여간에 나온다. 한 마리는 왕을 상징하고 또 한 마리는 백성을 상징한다고. 백성이 있어야 왕도 있다. 백성이 행복해야 왕도 행복하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이 행복해야 행복하시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주님의 백성과 춤을 추시는 것과 같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어우러져 신명나게 춤을 추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목회자의 참 행복은 교인들의 행복에서 비롯된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라는 직은 혼자서 아무리 춤을 춘다 해도 행복할 수 없는 자리다. 교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춤을 출 때에야 비로소 목회자도 행복하다. 교인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삶이 변화하여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목회자는 사역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이민교회의 현실은 더욱 그러하다. 변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변화되어가는 소수라도 바라보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그들과 함께 춤을 출 때 어느 날 목회 현장은 거대한 군무(群舞)의 자리로 변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살전3:8).

무언가를 배울 땐 실패하는 게 당연하다!

NY타임스, 스미스여대에서 실시하는 “실패학” 신설 이유와 유익 소개(2)

수업시간에 제출하는 보고서마다 늘 만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이력서에는 갖가지 다양한 경험과 활동이 빼곡히 적힌 우수한 학생이 정작 대학 생활에서 겪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실패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실패라는 것이 기숙사에 원하는 방을 얻지 못하거나 수강신청을 제때 못해 대기번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아니면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정말 사소한 문제다.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들어야 하는 수업에서 낙제하거나 아예 대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는 것 같은 심각한 문제가 전혀 아녜요. 학생들이 기숙사에 있는 대학생활 상담실에 정말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 같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면 수업에서 A 학점을 못 받았다고 진심으로 낙담하곤 해요. 동아리에 들지 못했다는 이유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대학생활 상담센터를 찾기도 하죠. 정말로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아주 작은 실패조차 너무나 두려워하는 나머지 아예 사소한

보여주는 것이다. 리스콧하임스 교수는 이 프로젝트를 가리켜 “누구나 비슷한 문제로 애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내 대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이 힘을 모아 컨소시엄을 발족하고 재원을 공유하기 시

대치가 너무 높아요. 학업 성적이나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연애나 가족, 친구 관계까지 다 잘하길 바라죠. 그러면서 하루에 8시간씩 달게 자고, 외모는 항상 깔끔하게 빗이 나며 운동도 빼먹지 않고 하는 그런 생활을 틈틈이 소셜미디어에 올려주는 삶을 기준으로 상



“실패 결핍” 기본적인 문제조차 해결 못하는 우등생 보고 만든 단어

유명 대학마다 프로젝트 만들어 사소한 실패에 대처하는 법 가르쳐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도전이라는 것과 답을 쌓는 학생도 있어요.”

10년쯤 전에 스탠포드와 하버드 교수들은 학생들을 관찰한 끝에 “실패 결핍”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수업에서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뛰어난 학생이 일상생활에서 부닥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걸 보고 만들어낸 말이다. 스탠포드대학교에서 신입생 지도를 담당했고 책 “어떻게 어른을 길러낼까”를 쓰기도 한 줄리 리스콧하임스 교수는 “많은 학생이 문제에 갇혀 움찔달짝 못 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교수들은 이내 미국대학건강협회가 제공하는 정신건강 데이터에 나타나는 특징과 기본적인 대처 능력 부족으로 고생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데이터는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관리하기 어려운 과도한 스트레스, 학교 측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리 상담 서비스 급증을 가리키고 있었다.

코넬대학교는 지난 2010년 학생들에게 전공 지식뿐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기술도 가르치는 것을 학교의 의무라고 선언했다. 코넬 학생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내린 조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스탠포드대학교가 “오탁이 프로젝트(Resilience Project)”를 시작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유명한 스탠포드 졸업생들이 자신이 받은 참담한 성적표 등에 관해 말하는 동영상 제작해

작하면서 비슷한 프로그램이 잇따라 생겨났다.

하버드대학교의 “성공-실패 마주하기 프로젝트”는 거절당한 사연을 위주로 모아 소개했고, 프린스턴대학교의 프린스턴의 “관점 프로젝트”는 실패담이나 고생한 이야기를 당당히 꺼내 이야기하는 법을 가르쳤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펜실베이니아 학우들의 진짜 표정(Penn Faces)”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아무리 힘들어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멀쩡한 척, 행복한 척하는 학내 문화를 지칭하는 단어 “Penn Face”를 비틀었다.

대학교 3학년 때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걸 도왔던 에밀리 회벤은 얼마 전에 졸업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아주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거는 기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삶이란 절대로 그렇게 완벽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보여주려 했던 거죠.”

오스틴 텍사스 주립대학교 학생들은 “Thrive”라는 이름의 아이폰 앱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 이 앱은 “대학 생활의 좋을 때와 나쁠 때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앱으로 짧은 영상이나 귀감이 되는 문구를 정리해 놓았다.

UCLA는 학생들이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부처를 만들어 교직원들 뽑았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인문과학대학인 데이비스 칼리지에는 이른바 “실패 펀드”로 불리는 일종의 보조금 제도가 있다.

(1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유원정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Aviation Management
(General Aviation Management & Flight Aviation Management & Helicopter Flight, Flight Dispatcher, Flight Attendant: Cabin Crew)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L, M.Div, MBA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2017년 항공학과 신설

국제 항공기 조종사, 헬기 조종사, 항공 운항사, 객실 승무원 양성

본교에서는 F-1 Visa 와 J-1 Visa 를 발행하며 집종영어교육(항공전문영어), 비행 조종 실습 및 항공사에서 인턴십도 가능합니다.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공무원, 교사,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571) 730-4750 / Fax:(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폭력은 또 다른 폭력 낳는다!”

〈1면에서 계속〉
게다가 현재 헤즈볼라는 이라크에서도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싸우는 시아와 민병대를 돕는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그 두 나라는 2006년 마지막으로 전쟁을 치렀다)을 치르려면 헤즈볼라는 곧 3개의 전선(시리아, 이라크, 이스라엘)에서 싸워야 할 처지다. 그럴 경우 어찌면 시리아에서 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하면서 얻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른다. 베이루트 아메리칸대학의 할랄 하산 정치학 교수는 “이스라엘이 전면전에 나선다면 헤즈볼라는 승산이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요격미사일 체계를 전력화했다.
그러나 헤즈볼라는 전력의 분산에 따른 불리함과 어려움에 조금도 개의치 않는 듯하다. 적어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교외 다히예의 두 사령관에 따르면 그렇다. 그곳 길거리의 벽은 미소 짓는 나스랄라의 초상화로 도배

제 대전차 미사일이 이스라엘 지상군을 치열하게 공격하자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휴전에 합의했다. 그 전쟁으로 역대 최강군을 가진 이스라엘이 병력 120명을 잃었다. 제2차 인티파다(팔레스타인 봉기) 이래 어느 전쟁에서보다 더 큰 희생이었다(헤즈볼라는 49~300명 사이의 대원을 잃은 것으로 추정됐다).
지금의 헤즈볼라는 그때보다 훨씬 강하다. “2006년의 헤즈볼라 전력은 지금의 3% 수준에 불과했다”고 헤즈볼라 전사 무스타파(가명)가 말했다. “시리아에서 얻은 경험으로 우리는 매우 강해졌다. 18세로 시리아에 싸우러 갔던 소년이 지금 24세다. 그는 친구들이 자기 앞에서 죽는 것을 봤고 그곳에서 가족을 잃었다. 이제 그는 더 잃을게 없다. 그는 피 한방울이 남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히세로 들리지만 어느 정도 진실도 담겨 있는 말이다. 2006년 전쟁 이래 헤즈볼라는 시리아 정권과 이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첨단 무기를 확보했



돼 있다. 무기 결에 선 잘생긴 젊은 전사들의 사진도 함께 붙어 있다. 전부 시리아에서 전사한 그곳 출신이었다.
두 사령관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담배를 피우며 다디단 차를 마셨다. 한 명은 고위 장교였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참모였다. 고위 장교는 “우리가 시리아에 파견된 이래 전투력이 훨씬 강해졌다”고 자랑했다. “이전의 헤즈볼라는 방어에만 주력했다. 하지만 지금은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법까지 터득했다.” 그의 참모가 끼어들었다. “지금의 헤즈볼라는 이전에 꿈도 못 꾸던 무기로 무장했다. 시리아에 내전이 없었을 땐 그런 무기를 손에 넣기가 불가능했다. 특히 이처럼싼 가격에 말이다.”
2006년 이스라엘-레바논 전쟁에서 헤즈볼라는 막강한 이스라엘군도 대적하기 힘든 상대였다. 요르단 강 서안과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달리 헤즈볼라는 수십 년 동안 훈련됐고 소지한 무기도 정교했다. 러시아

다. 지난해 헤즈볼라는 정규 병력 약 2만 명과 예비군 2만5000명을 거느렸다. 중간 규모의 군대에 비교할 만하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발랄 사브는 “헤즈볼라는 군사적 역량을 가진 준 국가단체로서 가장 막강하다”고 평가했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헤즈볼라가 전쟁 발발시 사용할 수 있는 12만 기의 로켓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다. 유럽 연합(EU)의 대다수 회원국보다 규모가 더 큰 로켓 병기고다. 또 레바논 남부 국경지대의 지하 터널망도 보완했다. 그중 일부는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뚫려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다히예의 고위 장교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중동 전체가 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모두가 싸울 것이다. 여성과 아이들도 칼을 집어 들 것이다. 이전에 우리는 보르칸-1 미사일을 이스라엘군에 사용할 비밀병기로 보유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미사일을 시리아에서 사용해야

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가 그 미사일을 가졌다는 사실을 안다. 상상해 보라. 우리는 1시간 안에 미사일 4000발을 쏠 수 있다. ATV와 무기화된 드론, 모터바이크로 이스라엘 영토로 침투할 수 있다. 그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들의 천연가스 송유관을 공격할 수 있다. 우리에겐 대공 미사일도 있다. 이스라엘 비행기가 공항에서 이륙하는 즉시 폭파할 수 있다.”
양측이 서로에게 입힐 피해를 감안하면 ‘상호 억제(mutual deterrence)’를 유지하는 현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양측 사이의 전쟁이 임박한 듯 한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 차례 있었다. 2015년 1월에도 이스라엘은 시리아에서 헤즈볼라 수송대를 공습했다. 헤즈볼라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국경 부근에서 이스라엘군을 공격했다. 그러나 다행히 전투는 확대되지 않았다. 또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헤즈볼라 무기고로 추정되는 곳을 잇달아 공습했지만(가장 최근 경우는 6월 25일) 전쟁은 발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한 양측의 군사 활동은 평화를 위한 바람직한 조짐은 아니다. 지난 3월 이스라엘은 북부 국경에서 모의로 레바논 마을까지 건설해 헤즈볼라 영토 내의 전투를 가정한 군사훈련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더 최근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병력을 레바논 남부로 이동 배치했다(그들은 첩보와 이스라엘군 이동을 관측한 자료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다히예의 한 지휘관은 “지금 시리아 쪽에선 시리아 정부군이 상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우리의 주력 부대는 이스라엘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국경이 가까운 레바논 남부에선 고조된 긴장이 피부로 느껴진다. 사실 수년 전부터 그랬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침공을 우려한 헤즈볼라의 병력 이동 배치와 미국의 시리아 내전 개입 강화를 감안하면 이곳 상황이 더 다급하게 느껴진다. 이곳은 헤즈볼라의 심장부로 그들이 숲으로 우거진 계곡과 언덕에 숨겨진 범커 속에 미사일을 배치해둔 곳이다. 일반 주민이 잃을 것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의 위협을 안고 살아가는 데 오래 전부터 익숙해졌다. 한 헤즈볼라 관리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도 그에 맞설 준비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자손과 그 아래 후손에게도 싸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문화의 일부다.”
그는 여름이 끝나기 전에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그의 생각이 옳다면 시리아에 주둔 중인 라비에 같은 헤즈볼라 전사는 곧 새로운 전선으로 이동할 것이다. “레바논 이든 시리아든 이스라엘이 침공한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갈 것”이라고 라비에에는 말했다.

재플린 임상목회 (7)

고통 없고 평화로운 임종



박동서 목사
(Dignity Health 병원 채플린)

지난주에는 아내와 함께 연로하신 숙부와 숙모님을 뵙기 위해 제법 먼 길을 직접 운전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숙부는 이미 여러 차례 심장 혈관 스텐트 확장 수술을 하셔서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상황이었고, 숙모님께서도 딸의 병이 악화되어 극심한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이제 50대 초반인 사촌 여동생은 십여 년 전 발병했던 신장암이 재발하여 침대와 간에까지 암세포가 전이되어 항암 치료를 포기한 채, 집에서 진통제만 먹으면서 임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촌 여동생은 자기 집 근처에 부모님의 거처를 마련해서 두 분을 수시로 돌봐드리며 모든 병 수발까지 해왔기에 숙부님 내외분이 받은 충격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 아들도 있고 타 주에는 막내딸도 있었지만 옆에서 모든 일을 행여주는 자상한 딸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은 언어와 문화가 낯선 미국 땅에서는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촌 여동생은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이민 와서 학교 방과 후에는 부모님 가게를 돕고 동생을 돌보면서도 동부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과 대학원을 전액 장학금으로 졸업할 정도로 총명하고 효성이 지극한 딸이었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서 슬하에 아들도 낳고 그 아들도 잘 자라서 이변에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 대학원에 입학까지 한 그야말로 아쉬울 것이 없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왔었습니다. 한인 2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단체를 조직해서 미주 동포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미 주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다니는 교회에서도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맡없이 섬기는 신실한 교인이었기에 교회 목사님이나 교우들의 충격도 커서 치유를 위한 기도회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장성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두 분이아말로 여러 가지 지병과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식 앞에서 눈물조차 보이지 않으려는 결모습과는 달리 언제 쓰러지실지 모를 정도의 깊은 슬픔과 죄책감에 쌓여 계셨습니다. 우선 두 분을 먼저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와 아내에게 동시에 갖게 하신 것을 알고, 오늘은 사촌 여동생을 못 만나고 가더라도 두 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치유를 돕기로 하였습니다. 조카나 목사로서가 아니라, 제가 마치 병원에서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환자의 노부모님을 채플린으로서 만나고 상담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두 분은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는 슬픔과 두려움의 감정들을 말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을 돌보느라 항상 노심초사하던 그 스트레스로 인해 딸이 행여 암에 걸린 것은 아닌가하는 자책감마저 갖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그 감정들이 얼마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느낌인지를 공감해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며 오랜 시간 경청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웅덩이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 옆에 조용히 앉은 채로 더 이상 혼자자 아니라는 믿음, 자신의 말과 감정을 존중하며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그동안 의지적으로 억누르고 절제해온 마음의 감정들을 하나 둘씩 고집어내며 스스로 감혀 있었던 웅덩이에서 마치 걸어 나오는 치유의 과정을 경험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과 남편, 아들과 함께 더 깊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딸의 집을 방문해 달라고 먼저 청해 주셨습니다. 사실 사촌 여동생은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에, 출발하기 전 아침에 저희 부부는 이 방문에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통해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사촌 동생은 최고의 의료기술을 갖춘 병원에서의 온갖 치료와 노력에도 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병원 입원실 대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낼 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막상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별을 고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담임목사나 교인들의 심방마저 꺼릴 정도로 마음의 고통이 컸고,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나 남편과 아들도 마음대로 민감할 대로 민감해 있는 환자의 기분을 살피면서 하루하루 숨을 죽이며 속으로 눈물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운 방문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자는 어느 정도의 분노도 있었지만 답답하게 죽음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애증함의 감정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영생에 대한 확신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게 되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변하면서 남은 시간을 정말 이쁨담고 소중한 가족들과 추억의 순간들로 만들고 싶어 하는 갈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차례로 환자의 삶과 사랑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나누면서 환자의 불안과 걱정은 현저히 줄어들고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환자가 함께 손을 잡고 이쁨담고 평화로운 이별과 천국에서의 만남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은 환자와 가족들 뿐 아니라 저희 내외의 마음까지 먼저 주시면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떠난 여정은 오히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화조차 받지 불편해 하셨던 숙부, 숙모님을 만나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상처를 치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우리를 따님의 집으로 안내해주셔서 부모님과 아들과 함께 드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터치를 체험해 해주셨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육신의 이별은 고통을 남기지만, 영혼의 소망은 그 고통을 이기고 아픔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tdspark@gmail.com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7 가을 학기 강의 안내

Sept 18-22(9월 18-22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Sept 25-29 (9월 25-29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On Online Courses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9 - Dec 1(10월 9일-12월 1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Oct 30-Nov 3(10월 30일-11월 3일)
DI Cross-Cultural Teaching and Learn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Chicago, IL

Oct 23-27(10월 23-27일)
PM 8061 Pastoral Counseling(목회상담)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jik Lee(이관직박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회서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 지이다”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세상 구석구석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

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야고보서 5:17-18에는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

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극한 흉년을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고 초근목피가 말라 죽어갈 때 하나님은 엘리아 선지자를 불러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아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엎드려 기도했고 7번 기도 끝에 비

로소 하늘은 비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나 그 뜻은 엘리아의 기도를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강물에 비교한다면 기도란 수도관과 같아서 기도라는 수도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강물이 거세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될 수 없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그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로 작정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미 구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영광스런 그날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이 약속을 믿고 주께서 승천하신 후 120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일심으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이 불의

혀 같이 성령이 임재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늦은 비의 성령을 부으시기 위해 우리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1서 5:14-15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몇년전 뉴욕동양제일교회에 부흥회를 갔을 때 일입니다. 부흥회 둘째 날 새벽예배를 마치고 호텔에 돌아와 잠시 누우려고 불

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가 시계 열람소리에 놀라서 잠이 깨어 열람을 끄려고 손으로 더듬다가 그만 그 곁에 세워둔 올리브 오일 병을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올리브오일이 성대회복에 좋다고 자기 전에 한 스푼 마시고는 뚜껑을 닫는 것을 잊어버리고 잤는데 그 병이 넘어지면서 옆에 천으로 된 소파에 쏟아져 큰 얼룩이 지게 되었습니다. 급히 수건에 비누를 묻혀 닦아보아도 얼룩은 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리 속에 번개같이 떠오르는 성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 16:24)” 저는 큰 일만 놓고 기도했는데 이런 작은 일도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들렸습니다. (6면으로 계속)

푸/른/초/장

김기원 목사
(장위제일교회 원로)



많은 사람들이 고진감래를 원하고, 또 간증하는 자들이 많다. 물론 그것이 잘못 되었다거나,그것을 원하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다. 그러나 알것은 진정한 고진감래는 이 땅보다는 소망의 다음 세계이다. 성경에는 영원한 다음 세계에 대하여,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과 고난, 그 어떤 질병이나, 사고, 비극이 영원히 존재 하지 않는 곳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저주의 비극이 계속되는 지옥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육신의 삶은 최후의 순간까지 사명감당을 위해 성령에 이끌리어 고진고래를 택했던 것이다. 예수님의 사명의 생애 역시 고진고래였다.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지

전히 감래는 고사하고 고래의 삶속에 기죽어 있는 자들, 성공한 사람들보다 더 고생하고도, 과거의 고생에 대해 입도 병곳 못하면서 기죽은 삶을 사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가진 생각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했다. 그러므로 고진감래가 아니더라도 삶의 실패자가 되었거나, 신앙의 실패자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코 기죽거나 소망 없는 자들처럼 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욕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양 한 것처럼 살아야 할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각오한 고진고래는, 기대와는 달리 다온 고진고래에 대한 자기변명이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행14:22)고 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죽으려 가는 길이요, 그것이 사명의 길이다. 퀴바디스에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어디를 가고 계시는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신의 욕적이거나, 세속적인 욕망, 육체가 요구하는 것 부인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머리둘 곳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기본적인 안식처를 가지지도 못하셨다. 은퇴비 많이 받아 최후의 순간까지 선교하고, 후배들을 돌보기 위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밝아야 하고, 귀도 밝아야 하고, 두 다리 튼튼해야 하고, 거룩한 의욕을 계속 충전시켜야 한다. 배터리 수명이 다 되어 가면 더 자주 자주 충전시켜야 한다. 주님을 따르자. 운유 겸손의 길,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의 길...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의 기회는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있다. 우연은 없다. 생명 사용 계획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성령의 감동은 "고진감래"하라고 하기보다 "고진고래"의 길을 원하지 않았는가? 저는 아픈 몸 이끌고 눈이 펄펄 쏟아지는 날 기도원 기도굴에 들어가 추위에 벌벌 떨면서 기도하는데, 성경 구절은 떠오르지 않고 돈키호테의 최후의 평가가 생각났다. "그는 미쳐서 살다가 제 정신이 돌아오자 죽었다" 저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생각이 너는 사도 바울처럼 "미쳐서 살다가 미친 그대로 죽어라"

고진감래인가? 고진고래인가?

(마태복음 10장 38절/누가복음 14장 27절)

우리가 알 것은 이 땅의 삶은 누구에게나 고진감래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성경에도 족장시대의 흐름은 대개의 경우가 고진감래의 기록이지만, 참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생애, 교회사 속에 많은 지도자들이 고진감래 라기보다, 고진고래였다. 특히 사도바울의 생애, 베드로의 최후, 야고보의 순교, 사도요한의 무인도 밧모섬의 유배, 스테판 집사의 순교, 다 고진고래였다(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이기풍 목사, 한경직 목사, 육한흠 목사, 이중표 목사, 하용조 목사,...).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서도 마음은 행복했고, 소망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다. 항상 기뻐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 양고, 최악의 진한 고통 속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셨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무엇을 보여 주어야 되는가? 고진감래로 증명할 것인가? 스스로 순종하므로 고진고래로 통해 보여주고 증거 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실상은 무엇인가? 성공한 사람들의 과거의 고난은 오히려 빛나고, 자랑거리, 간증거리가 되지만, 그리고 고진감래의 목사의 삶은 기가 살아 과거의 고난을 간증하지만, 수십년을 고생해도 여

니? 를 생각해봐야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교훈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진감래가 아닌, 고진고래의 삶이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감사, 평강이 필요하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다(마16:24).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고 하셨다(마 10:38).

아닌, 심지어 찾아온 고진감래를 기꺼이 사양한, 즉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죽도록 충성을 각오한 고진고래인 것이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핏대를 향하여 최후의 순간까지 뛰고 달리는 삶의 결단인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이 땅에서의 고진감래를 목표한 것이 분명히 아님을 밝히는 것이다. 나는 고진감래에 만족하며, 당당하게 누리며 사는 길을 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진고래의 길을 감사한 맘으로 자원하여 뛰고 달리는 삶인가? 딤후 3:1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서면, "은쟁반에 금 사과" 이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주어 노후보장 받겠다면, 생각해볼 문제다. 선교는 생색만 칠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울은 최후의 순간까지 사명 감당을 위해 날마다 죽는다고 했다. 자기 십자가는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은퇴 원로가 사명의 끝이거나, 사명 방학인가? 당회장, 담임은 끝났지만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니다. 목사의 짐을 벗은 것은 아니다.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하고, 그저 식사 기도나 간단히 하고, 다른 사람 기도할 때 머리나 숙이고, 그

지금도 제 정신 돌아오면 하기 싫어진다. 성령에 취하고 복음에, 선교에, 사명에 미쳐야 한다. 기도하는 일 게으르고 싶은가? 답답한 것도 없으니, 제 정신이 돌아와서 그런 거다. 다시 미친것이 재발해야 한다. 그것도 기쁘고, 감사한 맘으로....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한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30절 "이는 내 머에는 철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kkiwon2002@hanmail.net

2017년 가을학기



베데스다 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www.buc.edu

“ACF 선정 Online 교육과정 미주 7위”(2015)



입학상담 자세한 정보는 buc.edu를 통해 확인하세요.



1-714-683-1207 (입학처)

admissions@buc.edu

TEL:1-714-517-1945 / FAX: 1-714-683-1440

www.buc.edu

모집학과

신학

- 학부(B.A.): 목회학/성서신학/기독교교육학/선교학
- 대학원(M.Div.): 목회학/성서신학
- 박사(D.Min.): 목회학 박사

음악

학부(B.A.)/대학원(M.A.)
건반악/관현악/작곡/지휘/찬양사역/실용음악/뮤지컬/컴퓨터.영화음악

경영학

학부(B.A.)/대학원(M.B.A.)
일반경영/스포츠경영/법무행정
경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을 양성합니다.

유아교육

학부(B.A.)/자격증프로그램
어린이집, 프리스쿨, 차일드케어 및 교회 유치부, 유년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ESL

ESL I-20/ Certificate
학부, 대학원생을 위한 본 과정과 ESL Certificate을 위한 어학연수 과정

온라인

학부(B.A.)/대학원(M.A./M.Div.)
전세계 어디든지 온라인과정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대학 스포츠팀

남녀 축구부/남녀 농구부/야구부
미국 기독교대학 체육협회 NCCAA에 가입되어 체육 특기생으로 학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정규 4년제 대학교
SEVIS I-20발급

정부학비지원
(Financial Aid)

각종 장학금 혜택



730 N. Euclid Street, Anaheim, CA 92801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부루쇼인(Burusho)이라고 불리는 부루샤스인(Burushas)들은 파키스탄 북쪽 바위투성이의 산악지역인 훈자(Hunza), 나가르(Nagar), 야신 계곡(Yasin Valleys)에 산다. 이 계곡은 북쪽으로는 중국, 북서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동쪽으로는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루쇼인들은 훈자계곡에 산다.

부루쇼인의 기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으나 전설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병사 3명이 기원전 300년경에 훈자계곡에 와서 정착했다고 한다. 다른 전설에 의하면 부루쇼인들은 인도 북서쪽으로부터 파키스탄으로 들어온 인도-아리안계 침략자들로부터 유래했다고 한다.

훈자지역은 수백년 동안 미르(mir)라고 불리는 군주에 의해 통치됐다. 1892년부터 1949년까지 영국이 이 지역을 통치했으나, 1949년 파키스탄과 인도와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UN의 휴전협정 때 파키스탄이 훈자지역의 통치권을 획득했다. 1974년 파키스탄이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까지 미르(mir)가 지역문제들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있었다.

정치적인 억압과 통치권을 위한 투쟁은 오랜 세월동안 부루쇼인들의 삶을 매우 어렵게 했다.

삶의 모습
부루쇼인들은 자긍심이 강한 종족이지만 여전히 매우 따뜻하고 우호적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농사꾼이고 일부는 관광업이나 상업에도 종사한다. 다른 일부는 군인이거나 공무원이다.

가족 간의 결연은 부루쇼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남편은 가정의 우두머리가 된다. 부루쇼인들은 대개 다른 종족들과는, 심지어 훈자족(the Hunza)과 나가르 부루쇼인(the Nagar Burusho)과도 통혼하지 않는다. 이들의 집은 주로 콘크리트나 돌로 지어지고 겨울에는 별로 따뜻하지 않다. 나무가 부족해서 등유가 난방용으로 사용된다.

부루쇼인들은 과일이나 곡류, 야채 등으로 구성된 저단백질 음식을 먹는다. 복숭아와 살구, 견과류

등이 인기 있다. 이들은 우유와 양모를 얻기 위해 양과 염소, 소를 기른다. 중요 산업으로는 모직 의류와 건조된 살구 생산 등이 있다.

부루쇼인들은 부루샤스키(Burushaski)라는 언어를 사용한다. 이것이 이들의 첫째 언어이지 만 아직 문자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훈자, 나가르, 야신의 세 계곡에서 각각의 방언을 사용하며 훈자 방언과 나가르 방언은 매우 비슷하다. 파키스탄의 국어인 우르두어는 부루쇼인들에게 둘째 언어다.

신앙
부루쇼인들은 전통적으로 "정령 숭배자"(만물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들이었지만, 근래의 이들의 주된 종교는 이슬람이다. 부루쇼인들이 사는 계곡에 따라서 이들이 따르는 이슬람의 파별이 다르다. 대부분의 부루쇼인들은 "이스마엘파(Ismailis)" 무슬림이고 "시아파(Shia)"나 "수니파(Sunni)"도 있다.

"아가 칸(Aga Khan)"은 이스마엘파 무슬림의 영적인 지도자이며 성령을 가진 유일한 사람으로 믿어지고 있다. 이들은 또한 그를 이 세계에서 인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를 대리는 자라고 여긴다. 그만이 하나님과 구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스마엘파" 신도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으며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영적인 친척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부루쇼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적대감이 없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하며 성경 읽기를 방해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시아파" 신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다. 부루쇼인 중의 기독교인은 0.03%도 못 미치며 이들 영역에 교회도 없다.

필요로 하는 것들
부루쇼인들에게는 불량한 수질

과 영양으로 인한 보건문제가 많다. 안과질환과 치과질환도 일반적이다. 부루쇼인들에게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사들이 매우 필요하다. 특히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자질 있는 교사가 요청된다.

또한 부루샤스키어(Burushaski: 부루쇼인들의 언어)는 아직까지 문자언어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문자언어를 개발할 수 있는 자질 있는 사역자가 필요하다.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이라는 이름은 이들 나라가 이슬람교 위에 건국됐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파키스탄은 기독교에 대해 문을 닫고 있으며, 나라 안에 선교사의 거주를 거부한다. 아가 칸(Aga Khan)은 심지어 국민들에게 외국인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가르쳐왔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여호와의증인 러시아 활동금지’ 확정

러시아 연방대법원이 지난 17일 러시아 내 ‘여호와의증인’ 활동 금지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여호



와의 증인 본부 및 각지에 있는 395개 지부는 폐쇄될 운명을 맞았다.

유리 이바넨코 연방대법원 판사는 이 판결에서 “러시아 여호와의증인 운영 본부와 그 조직에 포함된 지역 종교 단체들을 해산하고 종교 단체의 재산을 모두 국고에 귀속시킨다”고 판시했다.

지난 4월 20일 연방대법원은 “여호와의증인이 극단주의적인 조직이며 시민의 권리와 공공질서 및 안전에 반하기 때문에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호와의증인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국제 여호와의증인 대변인인 데이비드 세모니언은 “대법원 판결과 반대되는 증거가 많이 있는데도 공권력이 우리를 극단주의자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여호와의증인은 유럽인권재판소(인권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18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인권재판소는 이미 2010년 러시아에서 여호와의증인 활동을 금지하려던 시도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불법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판결의 구속력이 없어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바꾸진 못했다.

러시아 내 여호와의증인 신도는 17만5000여명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여호와의증인 신도는 800만명으로 추산된다.

미 무슬림 상원후보에 저주 섞인 비난...

내년 미국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애리조나 주에서 출사표를 던진 디드라 아부드 변호사는 무슬림이다.



아칸소 주 리틀록 출신이지만 애리조나에서 19년간 살았고 인권운동가로도 장기간 활동했다. 원래 무소속이었지만 민주당으로 옮겨 내년 선거에서 현직인 공화당 중진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에게 도전장을 냈다. 그러나 아부드 변호사가 19일 페이스북에 출마의 변을 올리자 소셜미디어에서 저주섞인 비난이 쏟아졌다.

아부드 변호사는 “250년 전에 일단의 꿈꾸는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왔고 혁명적 비전을 그렸다. 그들에게는 정부의 번덕에 의해 족쇄를 채울 수 없으며, 기이한 왕의 종교에 더 이상 얽매어 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또 “정부는 도가 지나친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며, 종교는 정부의 간섭으로부터도 자유로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부드의 이런 출사표가 뜨자 온라인상에서는 ‘사이버 공격’이 가해졌다. 한 네티즌은 “잘해보길. 당신의 첫번째 사랑은 사탄(일명 알라)이고 두번째는 미국에 들어오는 당신네 쓰레기 국민들”이라고 썼고, 또 다른 네티즌은 “냄새나는 무슬림은 꺼져라”고 비난했다.

이어 “유권자와 함께 폭탄을 터트린다는 데 내기를 걸자”고도 했고 “미국에서 이슬람을 금지하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아부드 변호사와 선거전을 벌일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오히려 차분하게 그를 위로했다. 플레이크 의원은 트위터에서 “곳곳이 버터내길 바란다”면서 “미안하지만 이런 일을 참아야만 한다. 하지만, 여기 애리조나에는 훨씬 더 멋진 사람들이 있다. 당신은 곧 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中 "공산당원, 종교 갖지 말라..."

중국 국가종교국이 공산당원은 종교적 가치와 신앙을 추구해선 안된다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19

일 보도했다.

관영 인민망(人民網)이 운영하는 중국 공산당신문망(中國共產黨新聞網)에 따르면 왕쥔안(王作安) 국가종교국 국장은 최근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력잡지인 '추스'(求是) 기고문에서 "공산당원은 종교적 신앙을 가져서는 안되며 이는 전 당원에 해당되는 '레드 라인'(양보할 수 없는 쟁점)"이라고 밝혔다.

왕 국장은 이어 "당원은 굳건한 마르크스주의 무신론자로서 당의 규율을 따르고 당의 신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신앙을 가진 관리에 대한 사상교육을 통해 종교를 포기하도록 하며, 그에 저항하면 당 조직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경제발전이나 문화 다양성의 명목으로 당정 지도 간부가 종교를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또, "종교를 중국화해야 한다. 종교집단 및 개인을 사회주의 핵심가치와 우수한 중국 문화로 이끌고, 종교집단이 그들의 교리를 파고들어 사회 조화 및 발전에 유익한 부분을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와 이슬람교가 상당히 퍼져 있는 티베트(시짱〈西藏〉자치구)와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서 분리주의 요구가 터져나와 중국 당국이 바짝 긴장해왔다는 점에서, 왕 국장의 이 발언은 두 곳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주웨이훙(朱維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민족·종교위원회 주임은 "당원이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왕 국장이 거듭 되새기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일부에서 학자언해만 당내 종교적 신앙을 지지하는데 이는 변종법적 유물론에 기반한 공산당 가치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주 주임은 "한편 공산당의 가치가 손상되면 종교를 규제하는 당의 기본 정책 뿐만 아니라 당의 통합성이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쑤웨이(蘇偉) 공산당 충칭(重慶) 당교 교수는 "일부 외국 세력은 기독교와 이슬람 등 비토착 종교를 이용해 중국에서 그들의 정치적 견해를 의도적으로 퍼뜨린다"며 "어떤 종교 교리는 중국 윤리·관습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헤브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팔레스타인 내 성지가 두 곳으로 늘었다. 유네스코는 지난 7일 팔레스타인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의 헤브론



(Hebron) 구 시가지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기로 결정했다. 베들레헴의 예수탄생교회에 이어 두 번째다.

헤브론은 '진교' '동맹'이란 뜻으로 해발 927m 고지대에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중 하나다. 옛 이름은 '기랴트아르바'와 '마브레다'. 헤브론은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이 초기에 장막을 쳤던 곳이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구입해 아내 사를 장사지냈다(창 23). 아브라함을 비롯해 이삭과 야곱 모두 헤브론에 살았다. 하나님이 헤브론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도 했다(창 18:1).

헤브론은 다윗이 왕이 돼 통치한 곳이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돼 반역한 장소다. 남유다왕국 초대 왕인 르호보암은 헤브론을 요새화했다.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은 막벨라 굴을 다시 건설했다.

현대 헤브론은 유대교와 이슬람교 모두의 성지다. 막벨라 굴의 경우 유대인들에게 민족의 3대 시조 무덤이며, 무슬림들에게 신앙 조상인 이브라힘(아브라함)의 무덤이다. 막벨라 굴 지상에는 14세기에 건립된 이브라힘 모스크가 있다.

이강근 이스라엘 유대학연구소 소장은 "이브라힘 모스크 지붕 위에는 1500년 전 건축된 아름다운 비잔틴교회가 세워져 있다"며 "지하는 유대교 성지인 막벨라 굴이, 지상은 이슬람 모스크가, 육상엔 교회가 설치

된 복합적인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하 묘소는 성지순례객 등 외부인 접근을 막고 있다"며 "이삭 무덤은 무슬림이, 야곱 무덤은 유대인이 관리하고 있다. 아브라함 묘소는 이 두 묘소 사이 철문 안에 있다"고 덧붙였다.

헤브론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첨예한 곳이다. 성지순례객은 안전 상 이유로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 헤브론에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체크포인트를 통과해 무슬림 마을과 유대인 정착촌을 지나야 한다.

분노한 무슬림들 한가운데 홀로 선 팔레스타인 기독교인

팔레스타인인 니달 아보드(24)는 21일 수천여명의 무슬림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인근 와디 엘조즈 거리에 선 유일한 기독교인이었다. 그는 수 천명의 무슬림들이 집회 중 허리를 숙일 때 뒷



곳이 서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무슬림들이 통성기도를 할 때에는 조용히 성경책을 읽었고 그들이 '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치는 동안 경건한 자세로 서 있었다.

미국 언론 CNN은 한 팔레스타인 크리스천 청년이 종교적 분쟁이 지속되는 예루살렘에서 무슬림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23일 아보드의 용기 있는 행동을 소개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예루살렘은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14일 예루살렘 성지알아크사 사원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총기 테러로 경찰관 2명이 사망하자 사원에 급속 탐지기를 설치하고 50세 이하 무슬림 남성의 출입을 막았다.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이 이런 조치에 반발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낀 아보드는 무슬림 친구들에게 "너희 무슬림들이 기도드리는 시간에 나도 함께 서서 기도하고 싶다"고 전했다. 아보드는 21일 무슬림들의 기도시간에 거리로 나와 목에 십자가를 걸고 성경을 든 채로 무슬림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다.

아보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부터 세상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의 작은 행동이 종교와 종교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길 바란다"며 "종교와 종교 간 간극을 이어주는 대사가 되려는 나의 꿈을 이뤄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가슴 벅차했다.

미 CIA 국장 '김정은 축출' 시사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김정은 축출'을 통한 북한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 주목된다.

폼페오 국장은 20일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미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핵무기에서 떼어놓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현재 무기들을 통제할 권한을 가진 인물"이라며 "미 정부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핵 개발 능력과 핵 개발 의도가 있는 인물을 떼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정은 축출을 통한 북한 '대체 체인지'(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지난 5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과 대조된다.

폼페오 국장은 또 CIA와 국방부가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우린 (김정은) 정권을 (북한이란) 시스템에서 분리할 방법을 찾기 기대한다"면서 "북한 사람들도 그가 없어지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오 국장은 다만 김정은 정권 축출이 미국에 "전적으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했다.

한편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의 공화당 팻 투미

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은 '북한 연루 은행 제재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은행이 북한 금융기관에 외환결제 혹은 은행 간 업무를 제공할 경우 10만 달러 이하의 벌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 행정부는 북한 금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한 금융기관을 조사해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법안은 또 "북한이 모든 핵·화학·생체·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 조지 재가동 반대를 명시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동 문제는 현시점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를 위한 여건을 '북한의 비핵화 선언' 또는 '핵 동결'이라고 언급해 이 시점에 개성공단 재가동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성범죄 혐의 가톨릭 추기경의 추락...

아동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 조지 펠(76) 추기경이 26일 모국인 호주 법정에서 선다. 기소 후 첫 법정 출석이다.



펠 추기경은 가톨릭 세계 내에서 교황청 재무원장이라는 고위직책을 맡고 있다.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 헤럴드(SMH)는 "펠 추기경이 가톨릭 교회 서열 3위에 이르는 최고위급 사제지만 법정 출석과 관련해 그에게 특별대우는 없다"고 25일 보도했다.

이는 펠 추기경이 음주 운전자, 마약 사범 등 잡범과 나란히 서서 법원에 들어갈 처지로 전락했다는 의미다. 호주 멜버른 치안법원이 추기경이라는 신분과 관계없이 평상시대로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펠 추기경은 26일 오전 다른 피고인, 변호인, 경찰과 함께 줄을 서서 법정에 들어가야 한다.

가톨릭 고위 사제의 추락에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26일 법정 밖에서는 펠 추기경의 지지자와 성폭력 피해자가 시위하고, 호주는 물론 세계 유력 언론매체 취재진까지 몰려들고 진을 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유력 매체가 펠 추기경의 첫 법정 출석 취재를 위해 기자 12명을 파견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펠 추기경은 지난달 29일 호주 빅토리아주 경찰이 여러 건의 성범죄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자 "꼭 참석해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심리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는 꼭 나가겠다고 했다. 상례한 범죄 혐의는 현재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펠 추기경은 10일 모국인 호주로 돌아와 이번 재판에 준비해왔다. 그러나 호주 현지 언론들은 "세간의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날 첫 심리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단순히 다음 심리 일정을 정하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4면에서 계속〉

저는 소파 앞에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소파 일부를 좀 해결해주옵소서. 제가 부흥강사로 와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자 10분도 되지 않아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손님, 지금 그 방의 소파를 바꾸려고 하는데 시간이 괜찮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서 괜찮다고 했더니 바로 직원들이 새로운 소파를 들고 들어와서 바꾸었습니다. 저는 그 직원에게 "이 현 소파는 어떻게 합니까?"했더니 "폐기처분합니다." 그래서 "이 방만 소파를 바꾸느냐?"고 했더니 "아닙니다. 120개 방 중에서 4개방에만 소파를 바꿉니다." 그래서 "언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했더니 "10분전에 했습니다"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은 우리의 강렬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 작고 큰 모든 일에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31. 김중수(1880-1958)

김중수(金重洙)牧사는 1895년 경 전라북도에서 출생했다. 1920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전북 이리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일본 고베 신학교에서 공부한 후 1926년에 귀국하고 전라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전남 노회장을 역임했던 그는 김관식 목사가 단장이 된 한국교회 대표단 20여명 가운데 한 명이 되어 1928년 7월 11일부터 1주간 나성 홀로 시움에서 세계주일학교협회가 주최한 '세계주일학교대회'에 참석하였다.

미국 나성한인장로교회는 1926년 12월에 한국인 목사를 청빙하기로 가결한 후 2년이 되던 1928년 7월 세계주일학교 대회에 참석차 내한한 김중수 목사와 교섭하였고, 교섭을 받은 김 목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나성한인장로교회의 청빙을 허락했다.

나성한인장로교회

다년간 시무하던 조성환 전도사에 이어 1928년 11월에 김중수 목사가 나성한인장로교회 초대목사로 부임하였다. 그는 청년사역에 첫 기대를 걸었는데, 그 해 12월 청년부는 신앙토론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신앙 활동을 새롭게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해 2월에는 웅변대회도 개최하여 청년 신앙생활의 증진을 꾀했다.

1929년 9월 정지영, 전효택, 이순기 등 3명의 장로와 이성민, 손승조, 이영기, 현피터 등 4명의 집사 그리고 김강 부인, 손동달, 임영산, 이행란 등 주일학교 교사가 김중수 목사와 함께 사역하였고, 그 해 11월 제직회는 노회 보조금을 합한 75불로 사례비를 책정한다. 그는 교회의 자립을 선포하고, 교역자 사례금의 일부로 받던

노회 보조금 30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제직회는 교인 한 사람 당 3불 이상을, 가정을 가진 교인에게는 5불을 청구하여 교회 예산에 부족이 없게 하였다.

1930년 1월 공동의회가 소집되었을 때 약 80명이 출석했던 것으

일에 회집하고, 재적수 3분지 2의 가결로 결의토록 했다. 서무부, 교제위원부(사회부), 재정부 등 3부를 설치하고, 서무부는 교인의 이레이지 사무와 사고 유무의 고찰 및 행정을 맡고, 교제위원부(사회부)는 자선 사업, 교육 사업, 접대와 친목, 국가의 책임을 맡고, 재정부는 통상 연보(주일헌금)와 특별 연보 등 재정을 주관하고 수지 예산 업무를 맡았다. 그리고 직원 상호간에 친교를 돈독히 가지고, 상호 부조하기에 전력하며, 방해와 비난의 소리를 듣지 말고, 제직



김중수 목사

특별히 김중수 목사는 예배와 성례를 중시했다. 1933년 6월 주일예배 순서는 찬송가, 기도, 성경, 강도, 문제(설교제목), 독창, 출석교인, 연보전, 손님 순이었다. 성찬식은 1년에 4번 있었다. 그는 전도와 봉사에도 열심이였다. 1928년 11월 추수감사절에서 들 어온 특별헌금 전액인 37불 50센트를 조국의 가난한 동포를 위한 구제비로 송금하였다. 1930년 3월 리버사이드 지방에 거주하는 2가정의 18인을 중심으로 김 목사와 장로 1인이 매월 1회 예배를 인도하고 교포에게 전도했다. 그리고 이민법 관계로 샌베르나르디노에 구금된 본 교회 청년 주중남과 허은 등 2명의 한인 석방을 주선하기로 1932년 2월 당회가 결의하였다.

김중수 목사는 한인교회간의 연합활동에도 힘썼다. 1933년 6월에는 장감양 교회 교인 165명이 모여 연합예배를 드렸는데 사회와 기도는 김 목사가, 설교는 감리교회 황사용 목사가 담당했다. 그 해 7월에는 장감 양 교회 200

로교회의 전통을 계승하기로 가결하여 불발되었다. 그러나 12월에는 차광석 목사를 청하여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합동부흥예배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구체방안을 발표한다는 신문 기사가 있었다.

1934년에는 한국 선교 50주년을 기념하여 두 번의 기념식을 거행했다. 그 해 6월 24일 주일에는 100여 명의 한인 교인이 모여 기도 김 목사가, 설교에 황사용 목사가 담당한 기념식에 이어, 7월 1일 주일에 선교사 18명과 나성 노회 관계자 등 120여명이 모여 기념식을 거행했을 때는 기도 에 백목 목사, 설교에 김 목사, 축사에 프리차드 목사와 백목 목사 등이었다. 이 기념식을 계기로 교회 배가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외 김 목사는 라성국어학교의 9인 교육위원 중 한 명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김제란과 황사용과 함께 라성국어학교 교제부 부원으로 활동했다.

예배당 신축 프로젝트는 김중수 목사가 부임하기 몇 달 전인 1929년 3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교회의 터를 확립하고, 새 예배당 건축의 꿈을 꾸던 중 1936년의 8월 김

김중수 목사는 1936년 9월 황휴, 송창균, 안경호, 김순권, 전진, 현승걸, 김재신, 송현영 등 동지회 회원과 함께 노스 올리브 스트리트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후 하와이 한인기독교회를 모본하여 라성한인기독교회가 조직되었는데 동지회 인사들이 중심이어서 동지회 교회라고도 불린다. 1939년에 송현영을 부목사로, 그리고 이창성을 순행전도목사로 청빙하였고, 그 해 여전도회 복설예식을 거행했다.

1939년 11월 라성한인기독교회는 노스 알리부스 스트리트 225번지의 2층 건물로 이사하고 양로원을 개원했다. 그 달 23일에 추수감사절 식사를 마친 후 양로원 피로 연이 있었다. 일동 애국가 1절을 합창한 후 기도와 성경낭독 후 양로원 설립정형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양로원은 약 500여원의 시설비를 하였는데 방마다 가스화덕을 놓아 자취할 수 있었고, 방세는 6월 또는 6월 50전 이상이었는 데 여관에 비하면 약 3분의 1이 싼다. 이식 칸에 17명이 거주했다. 양로원 설립정형에 이어 연설이 있던 후 전명운 등 4명의 축사가 있었고, 이창성 목사의 감상담이 이어졌다. 피로연이 마친 후 회락회로 밤이 늦어 마치니 최근 라성한인사회에서 드물게 보는 성황이었다고 신한민보는 전한다.

김중수의 민족 사랑은 1939년 12월 이창희의 석방 추진에서 보여진다. 그는 유학생으로 원동 전쟁을 인하여 귀국을 정지하고 나성에 거주하다가 이민국에 체포되었다. 1940년 1월 11일 하오 2시 라성 알리부스 컷 장의소에서 라성기독교회 양로원에 거주하던 이경은의 장례식이 있었다.

1941년 3월 2일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김중수 목사의 사회로 나성 엘렌데일 플레이스 2716번지의 라성한인기독교회 예배당과 라성한인양로원 헌당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한인들의 힘으로 건축하기는 미주 한인사회의 처음 있는 일였고, 동 교회 부인전도회는 피아노를 기증했다. 1943년에 분열이 일어나 동지회 회관에서 예배를 드렸다.

김중수 목사는 1958년 4월 13일 나성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6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첫 번째 부인은 1931년에 38세로 소천하였고 1남 2녀의 자녀를 두었으며, 1932년에 결혼한 두 번째 사모는 나성에서 나이라, 브라이언 그리고 빅통 등 2남 1녀를 낳았다. 라성한인연합장로교회 70년사는 '김중수 목사는 우리 교회 70년사에 길이 기억될 목회자였다'고 그리워한다.

damien,sohn@gmail.com

1928년 세계주일학교 대회 참석차 나성 도착, 나성장로교회 초대목사로 부임

예배당건축 앞둔 1936년 사임, 동지회와 라성한인기독교회 조직 기숙사 추진



한국선교 50주년 기념



라성한인기독교회 마지막 예배당

로 보아 등록 교인은 이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그 해 제직회 규칙이 제정된다. 통상회와 임시회를 두기로 하고, 통상회는 매월 첫 주

회를 파탄시키려는 풍설을 하지도 받지도 말며, 모든 사무에 신구와 성경의 교훈과 교회 정치와 규범을 따라 처신하기로 하였다.

여명이 시카모 공원에서 야외에 배를 드렸다. 1935년 초부터 나성 노회 미국인 페인 목사의 주선으로 장감 합동을 발의하여 추진하였다가 그 해 11월 공동의회는 장

중수 목사는 나성장로교회를 사임한다.

라성한인기독교회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2018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8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자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화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7년 9월 30일 / 광고 접수마감 2017년 9월 30일**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유 료 광 고 안 내	돌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Back 면 Back 면 내면 Inside \$3,000.00 \$3,500.00 \$2,000.00 \$1,0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800.00
	(칼라)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전면 1/8	7.7cm × 11.7cm	\$250.00
		15.5 × 2.8cm	
	돌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무 료 리 스 팅 신 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주소록 광고담당 직원 모집: "2018년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에 삽입되는 광고 세일즈 할 분을 모집한다. 좋은 조건의 커미션을 제공한다. 지역은 미 전역과 한국, 전세계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718-886-4400)과 LA(323-665-0009), 이메일(뉴욕 nychpress@gmail.com, LA lachpress@gmail.com)로 연락하면 된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청교도 신앙(36)

청교도의 가정생활

나)사회 질서를 위한 성적 범죄 억제

청교도들은 성적인 범죄를 억제하지 못할 때 사회 질서가 깨어진다고 보고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1686년 뉴헤이븐(New Heaven)의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결혼 소문을 내거나 편지를 보내고 이성과 돌아다니거나 이성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것, 무질서한 야간 모임, 성적인 희롱, 선물을 보내는 것, 또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여성을 유혹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것을 금하였다. 또 기혼자가 독신이라고 가장하는 것을 엄히 금하였다. 뉴잉글랜드 모든 주에서는 신대륙 이주민 가운데 사임이나 이사 준비를 위해 온 경우가 아닐 때, 특히 배우자를 영국에 두고 홀로 도착한 경우에는 본국으로 송환하는 정책을 폈다.

다)성범죄 처벌

청교도들은 성범죄의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믿고 다른 죄보다 매우 엄하게 다스렸다. 특히 간음의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렸는데, 매사추세츠 주, 코네티컷 주와 뉴헤이븐 식민지에서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 간음을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은 3건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벌금형, 태형, 인두로 지지는 벌을 내리거나 간음(Adultery)의 경우에는 첫 글자인 'A'라는 글자가 새겨진 옷을 입혔는데, 이는 죄에 대한 수치심을 유발함으로 성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많은 이들이 나다니엘 호돈이 쓴 “주홍글씨”에 대한 평가를 수용하되, 전체주의적이고 제도적이고 율법적인 청교도를 비판하는 문학작품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시대의 흐름과 배경을 잘못 이해한데서 오는 왜곡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죄인됨과 성경적인 회개의 모습에 대항하여, 낭만주의적이고 인간적인 해결과 자유라는 데 초점을 맞춘 자유주의적이고 양심적인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평가와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A'라는 글자로 표현되는 음행의 경우에는 가벼운 태형과 벌금이 부과되었다. 강간은 간음과 같이

처벌되었다. 그러나 동성연애의 경우는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죄악으로 간주하여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교도들은 가정 폭력이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고 폭력이나 폭언을 엄격하게 금함으로 가정을 지키려고 하였다. 아내를 발로 차고 때릴 때는 법정에 소환되어 징계를 받았다. 아내를 '음녀'라고 욕하다가 고소되기도 하였고, 아내의 임신동안 아내를 구박하고 동침하지도 않고 출생한 아이를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 법원의 소환을 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청교도들은 가정 폭력을 제거함으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라)성적 욕구에 대한 견해

청교도를 왜곡되게 말하는 사람들은 청교도가 성적인 욕구를 누르는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소유했다고 비판하지만 그것은 단지 추측에서 나온 상상일 뿐이다. 오히려 청교도들은 성적인 욕구들은 로마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죄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연적이며 생물학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죄가 없는 상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라'(창2:24)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기반으로 청교도들은 부부가 동거하며 동침하는 것을 극히 자연스럽고 거룩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는 부부의 의무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육체의 상호 결합과 동거라고 했고,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는 결혼을 두 인격이 나누는 합법적인 결합으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표현했다. 에드워드 테일러(Edward Taylor)는 부부사이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욕구를 하나님이 인간 심성에 심겨 놓은 본성이라고 하여 성적인 욕구를 정죄하는 것을 비

판했고, 미국 청교도의 윤리적 방향을 제공했던 토마스 게테이커(Thomas Gataker)는 성도들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제도를 수치스럽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청교도들은 성적인 욕구를 자연스럽게 생각했고 부부가 동침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부부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분방할 수는 있지만 고의적으로 방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동거할 것을 권하였고, 심지어 상습적으로나 의도적으로 부부의 의무를 무시할 경우에 출교 처분하는

5)성은 먼저는 자녀 생산을 위한이다

청교도에게 있어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1:28)는 말씀을 따라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정을 향한 이 목적은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교도들은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기업이라고 믿은 반면,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그것을 저주라고 여기지는 않았다. 자녀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시127:3).

청교도들에 있어 가족계획을 한다든가 낙태를 한다는 것은 극도로 인본주의적인 주장임을 알았고, 창조 명령에 거역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녀를 생산하여 한 가정에 적어도 3명 이상의 자녀를 두었고 일반적으로 2년의 차이를 두고 자녀를 생산하였다. 약간은 다른 경우이지만, 존 웨슬리가 19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것과 또 에드워즈가 11명의 형제자매가 있었다는 것은 청교도들이 가족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간음자엔 A글자 옷 입혀, 동성애는 사형, 가정폭력도 법적징계 받아

가족의 범위를 부모와 자녀를 넘어 종과 부양노인, 나그네까지 포함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것은 부부의 상호간의 의무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지나친 성적인 표현과 비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결코 용납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 음욕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합당하지 않으며 경건을 유지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며, 음행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성행위를 추구하는 것을 정죄하고 부부생활에 중용을 주장하였다. 이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살전4:4-5)라는 말씀을 가정의 부부에게 적용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부부관계를 음욕의 표현으로 여기던 로마천주교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부부 상호간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의무로 생각함으로 부부관계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설명함으로 중세의 금욕주의적 결혼관을 배격하고 결혼 제도의 신성함을 주장하여 성경적인 결혼관과 가정관을 회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건한 자녀의 양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길이란 생각도 작용했을 것이다. 후기 현대주의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자녀 출산을 계속 제한하려는 입장에 있다면 이것은 복된 신앙의 유산인 청교도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들의 교회가 다시 청교도적인 자녀 생산의 의식을 회복하고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

6)경건한 자손 양육을 위함이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주된 목적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다고 생각했다. “그(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말2:15)는 말씀을 따라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는 죄 없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을 기도로 보살피며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가족의 개념의 범위는 단순히 부모와 자녀만을 포함한 것은 아니다. 가정에서 봉사하는 종들과 부양하는 노인들과 때로는 나그네들까지도 가족의 개념에 포함했다.

younsuklee@hotmail.com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홍통

심장이나 폐의 이상으로 인한 가슴통증

홍통(胸痛)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 흉곽 내에 다양한 장기가 있기 때문이다. 흉곽 내에 있는 장기로는 심장 및 대동맥, 폐 및 기관지, 식도 그리고 이런 장기를 보호하는 갈비뼈와 흉곽 근육이 있다. 이따라서 이들 장기 중 어느 한 곳에 이상이 있을 때 흉통이 발생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가장 흔한 가슴 통증유발질환은 관상동맥질환(협심증)으로 짝 죄는 듯한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된다. 심장 질환 이외에도 가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많다. 식도에 위산이 역류해서 식도가 조이는 경우는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심장 통증 증상과 거의 유사하다. 또 한국인에게 흔한 위염이나 위궤양, 갈비뼈에 염증이 있거나 각종 폐 질환인 경우도 가슴 통증을 느낄 수 있다. 숨을 크게 쉬거나 가슴을 누를 때 가슴 통증이 오는 경우나 가슴을 찌르듯이 아픈 경우는 보통 심장 이외의 이상일 데 나타나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통증의 양상에 따라 가슴 중앙부에 극심한 통증이 있을 경우는 급성 심근경색증, 폐동맥색전증, 박리성 대동맥류 등처럼 시간을 다투는 응급 질환인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한 처치가 요구된다. 통증 발생 부위가 가슴 중앙부인 경우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낭염 등 흉곽 내 장기의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슴 좌측 또는 우측에 발생하는 통증은 흉곽 골염, 근육 질환, 소화기 질환, 신경증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또한 통증 발생 부위가 갈비뼈나 등뼈를 따라 팔이나 턱으로 전파되는 경우에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을 의심할 수 있을 등 쪽으로 전파되는 경우는 박리성 대동맥류, 척추염, 식도 질환 등을 예상할 수 있다.

홍통의 원인이 이처럼 다양하므로 병력만으로는 진단되지 않아서 여러 검사를 거치기도 한다. 앞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홍통의 감별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것은 홍통의 강도, 부위, 홍통을 악화시키는 요인 혹은 완화하는 요인(예를 들면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가, 운동할 때 악화 되는가 등), 홍통의 지속시간, 홍통과 동반되는 증상, 홍통이 목이나 등 혹은 배 쪽으로 뻗으면서 아픈지 홍통이 언제부터 발생했으며 얼마나 자주 아픈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홍통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르다. 심근경색이나 대동맥 박리증 등은 응급 수술이 필요하고 위염이나 위산역류로 인한 식도염인 경우는 약물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홍통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치료의 지름길이다.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4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7년 10월 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 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도서

당신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유석경 지/구장

광야의 소리, 윤종하
성서유니온

나는 아메리카의 한국인입니다
김준자 역/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감사 플러스 긍정 플러스
이영훈 역/아름다운 동행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도서 구입처), 로고스 선교회(회장 박도원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조이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목회서신

따로 국밥 성도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생전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은 믿음대로, 내 생활은 내 생활대로’ 따로 따로 믿음과 생활을 별 개의 생활로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을 ‘따로 국밥 성도’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을 내 생활에 순간 순간 적용,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 깨닫기도 하고 은혜도 받기는 하는데 그것이 왜 생활에 적용, 실천하지 못할까? 이것이

현대교인들의 가장 큰 숙제이며,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따로 국밥 성도’의 신세를 면하고, 믿음을 실생활에 잘 적용, 실천할 수 있을까요?

1. 보이는 대로 행치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만, 영적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

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후4:18)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하

실 수 있다(Can)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하실 것(Will)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판단하며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2. 감정과 기분에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굴곡과 변덕이 심합니다. 어떤 때는 몹시 기쁘고 흥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간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 감정이 패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감정과 기분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해서는 안 됩니다.

태양은 항상 변함없이 밝게 떠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구름이 가리우고, 안개가 가리를 때도 있습니

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은 구름이나 안개와 같은 것이므로, 참 믿음은 감정과 기분에 의존해서 는 안 됩니다.

고통과 환난이 밀어닥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같이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더욱 더 사랑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의 실천은 감정과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3.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죄 사람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선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종세의 암흑시대에 카톨릭이 타

락하여 면죄부까지 팔아먹을 때,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일어나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개혁의 가장 큰 이슈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以信得義)”(롬1:17)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면죄부를 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죄를 대속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슬로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자가 참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의 생활을 적용, 실천할 수 있습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주여, 2017년이 통일의 해가 되게 하소서”
북한동족과 통일을 위한 통일포럼 토크쇼 및 통곡기도회 성황

그날까지선교연합(UTD-KCC Mission 국제대표 손인식 목사)와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 그리고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북한동족과 통일을 위한 통일포럼 토크쇼 및 통곡기도회가 21일 오후 7시30분 나성순복음교회에서, 23일 오후 5시 나침반교회에서 각각 열렸다.

21일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통일포럼 토크쇼 및 통곡기도회는 1부 통일포럼 토크쇼, 2부 통곡기도회로 진행됐다. 임창호 목사(고신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크쇼는 3명의 탈북자 강철호 목사(북기총 회장/새터교회 담임), 강철환 대표(북한전략연구센터 소장), 김아라 자매(탈북자, 채널A 탈북간증)가 패널리스트로 참여했다.

강철환 대표는 “최근 북한TV에 탈북자 임지연 씨가 기자회견하는 모습이 나왔다.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임 씨를 간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을 경험한 자라면 임씨의 모습을 봐도 그가 완전 겹에 질려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평범한 여성이고 북한에 다시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의 기자회견은 철저히 각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고 말했다.

강철호牧사는 “지난 97년 탈북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당시 북한은 철저히 기독교가 탄압돼 지하고 회만 존재했다”며 “김일성이 살아 있을 때는 북한에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에서 잡혀서 북송된 탈북자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 김아라 자매는 “북한은 남성우월주의 의식에 젖어있는 곳이다. 남성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직장에 출근하기 때문에 돈벌이를 할 수 없다. 여성들은 장마당이란 곳에서 돈벌이를 하며 살아간다”고 설명했다.

강철환 대표는 “북한정권은 국경을 봉쇄해서 탈북자를 막고 있다”며 “독재국가들이 무너질 때는 국민들이 외부의 정보를 접하고부터다. 북한을 평화적으로 변화시키려면 북한주민이 스스로 깨닫고 변화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국제시장과 인천상륙작전 등의 한국영화는 북한에 유입이 돼 음성적으로 접하게 됐다. 이러한 영화들이 북한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파일을 보내달라는 요청도 있다”고 언급했으며 강철호 목사사는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들이 북한사역을 하고 있지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가장 본질적인 복음전파가 빠져있는 것이다. 북한은 무조건적인 파주기로는 변화가 안된다. 독일통일에 독일교회들이 큰 역할을 했다. 한국도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통일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김아라 자매는 “한국영화가 USB를 통해 북한에 들어가 북한의 사상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저 같은 탈북여성배우들이 출연한 영화들이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 말했으며 강철호 목사사는 “북한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간첩으로 몰리게 된

다. 따라서 영화와 드라마 등 한국 문화를 USB에 담아 북한에 보낼 때 성경이야기를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작품들을 함께 담아서 보내는 것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2부 통곡기도회는 UTD-KCC가 제작한 영상소개, 손인식 목사가 △북한의 우상독재와 인권탄압이 끝나게 하소서 △북한 지하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자들이 풀려나게 하소서 △전쟁이 없고 피 흘림이 없는 복음통일을 주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합심기도를 인도했으며 김아라 자매의 탈북간증이 있는 진유철 목사가 △한국교회가 잠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통일의 주역이 되게 하소서 △세계 모든 나라가 일어나 한반도 통일을 돕게 하소서 △대한민국과 해외의 젊은이들이 통일을 누리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진유철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성경적 상담과 내적치유라는 주제로 열린 제6회 미주 성경적상담컨퍼런스에서 전형준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성경적 상담과 내적치유” 주제
제 6회 미주 성경적 상담 컨퍼런스

제 6회 미주 성경적 상담 컨퍼런스가 성경적상담학회(회장 전형준 교수)가 주최하고 성경적상담학회 미주지회 주관으로 코너스톤교회에서 17일부터 22일까지 열렸다.

‘성경적 상담과 내적치유’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주강사 전형준 교수(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목회상담학)가 ‘상담의 신학, 상담의 원리, 성경적 변화의 역동성’, 그리고 ‘성경적 내적치유’를 강의했으며 특별강사로 나선 심재덕 박사(백석대학교 박사/전 농심(주)CEO)

가 ‘예수님의 상담의 독특성’을 강의했다.

전형준 교수는 “성경적상담컨퍼런스는 사역현장에서 고통을 당하며 아파하는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상처 입은 성도들 심령을 치료 치유시켜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진행돼왔다”고 소개했다.

전 교수는 “올해 6회를 맞이한 컨

퍼런스의 첫회는 상담의 원리중심, 둘째는 상담의 변화과정, 셋째는 부분문제, 넷째 다양한 중독문화, 다섯 번째는 청소년 문제를 다뤘으며, 올해 열린 컨퍼런스는 성경적 상담과 내적치유를 주제로 세웠다. 그동안 기독교상담과 내적치유는 정신분석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고 성경적 원리로 한 상담과 내적치유는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참가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났다. 금요일에 열린 컨퍼런스는 참가자 전원이 눈물을 흘려 눈물바다가 됐다.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주님의 손길을 느꼈다. 이혼을 고려했던 부부가 마음이 하나됐으며, 탈진해서 사역을 중단해야 했던 사역자가 치유 받고 사역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결단했으며, 한인교회를 떠나 미국교회에 조용히 다닌 자도 있었는데 한인교회로 가서 사역하겠다는 결단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성경적 상담사역이 기독교상담 사역으로 나아갈 것이라 확신하고 개인 가정 교회 세우는데 모두가 뜻을 같이했다”고 이번 컨퍼런스를 진단했다.

〈박준호 기자〉

2017 국제전도폭발 미주한인지도자대회
미 전역서 40명 참석, 덴버헬로십교회서

전도폭발 미주한인본부(대표 이희문 목사)는 콜로라도 주 덴버헬로십교회(담임 김재중 목사)에서 2017년 전도폭발 미주한인지도자대회를 가졌다.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된 이 대회는 미국 동부, 중부, 서부 및 캐나다에서 총 40여명의 전도폭발 훈련사역자들이 참석했

다. 각 교회의 전도폭발사역 담당 교역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한 이 대회는 각 교회의 전도폭발 훈련 진행 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토의하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니어 전도폭발 강사교육도 병행하고 수료증을 수여했다. 〈11면으로 계속〉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ast.org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7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②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③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④ 신앙고백서 1부
- ⑤ 명함판 사진(2"×2") 2매
- ⑥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①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② 원서접수마감 : 2017년 9월 1일(금) 오후6시
- ③ 입 학 시 험 : 2017년 9월 2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④ 개 강 부흥회 : 2017년 9월 5일(화) - 9월 7일(목) 저녁 8시
- ⑤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동부교계 게시판

미드웨스트대학교 가을학기 개강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는 본교(세인트루이스)와 워싱턴DC 캠퍼스에서 ESL과 학부, 석·박사 과정의 신, 편입생 등록을 받고 있다. 가을학기 개강은 본교는 8월 7일(월)이고 워싱턴DC 캠퍼스는 8월 14일(월). 미드웨스트대학교는 유학생들을 위한 SEVIS I-20를 발행하고 연방국무성으로부터 J 비자 스폰서로 지정 승인 받아 교환교수와 연구원, 선교사,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인턴십 교환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문의: (636)327-4645, usa@midwest.edu

뉴욕 뉴저지 목회자친선 탁구대회

제 1회 블루이웃돕기를 위한 뉴욕 뉴저지 목회자친선 탁구대회가 8월 7일(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뉴욕탁구장에서 열린다.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단체전은 각 5명 이상. 임마누엘스포츠선교회가 주관하고 뉴욕목사탁구동우회, 뉴저지목사탁구동우회가 주최하며 뉴욕목사회와 뉴저지목사회, 뉴욕교협과 뉴저지교협이 후원한다.

▲문의: (646)270-9037

뉴욕 청소년센터 ‘힐링캠프’ 개최

뉴욕교협(회장 김홍성 목사) 산하 청소년센터가 에스더하 재단과 함께 ‘힐링캠프’를 개최한다. 8월 21일(월)부터 23일(수)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경호 목사) 교육관에서 열리며 참가대상은 8학년부터 26세까지. 선착순 40명이며 무료.

▲문의: (718)279-1313 김준현 목사, (917)279-2377 현미숙 사무총장.

감람원 리트릿 센터 안내

뉴욕장로교회(임시당회장 이응길 목사)는 최근 롱아일랜드의 조용한 private beach 지역에 한인교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양관(Retreat Center)을 개설하고 한인교회들의 이용을 기다리고 있다. 동 수양관은 비영리적 목적으로 뉴욕장로교회에서 직영하며, 각종수련회 또는 기도회모임 장소가 필요인 교회들은 저렴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다.

▲문의: (718)440-5404, nypcretreat@gmail.com

이노비,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서 클래식 무료 공연

이노비(EnoB: Innovative Bridge, 대표: 강태욱)가 지난 20일 오후 3시, 뉴욕 맨해튼 어퍼이스 트사이드에 위치한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에서 클래식 무료 공연을 열었다. 이 병원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암 병원으로 전 세계 중증 암 환자들이 치료받는 곳이다. 이노비는 투병과 치료에 지친 환자와 가족분들을 위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주 프로그램인 콘서트를 펼쳤다.

이 공연에는 현재 줄리아드에 재학중인 피아니스트 이지영씨가 음악감독을 맡고, 동대학 석사와 학사를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김한솔씨 그리고 서울대음대와 NYU 석사과정생 졸업한 작곡가 김혜연, 그리고 텍사스 대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소프라노 이하나씨가 참여해 환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프로그램은 엘가의 사랑의 인사, 거슈윈의 뮤지컬 곡, 그리고 미녀와 야수와 사운드오브뮤직등 모든 이들에게 익숙한 프로그램과 주옥같은 클래식 명곡들로 이루어졌다. 환자들은 “음악의 퀄리티가 너무

좋다.” “마음이 편안해 졌다.” “성악가의 목소리가 아주 놀라웠다.” “연주한 모든 곡이 다 너무 좋았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공연이 끝난 후 병원 담당자는 “이노비는 행복을 전하는 미션을 너무 잘 수행하는 것 같다. 매번 공연이 하나하나 다 특별하고 뮤지션들의 실력도 수준급이다. 메모리얼슬론케터링의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는 이노비에 특별히 감사의 뜻을 전한다” 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후원문의: (212)239-4438 enobinc@gmail.com

(기사제공: 이노비)



글로벌뉴욕여목연 어머니기도회 7월 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ICM 미국 재부흥 운동에서 강사들이 참석자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

ICM, 뉴욕 성시화 총력전도 운동 부흥집회, 전도훈련, 현장전도 및 간증보고회

국제도시선교회(ICM, 대표 김호성 목사)가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전도하는 대규모 전도운동인 “미국 재부흥 운동(Revival for America)”을 지난 7월 17일부터 시작해 26일까지 열었다.

뉴욕에서는 22일 “뉴욕 성시화 총력전도 운동”이 맨해튼에서 대규모 현장 집회와 전도로 개최됐다.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는 29가에 있는 램네프처지에서 부흥집회 및

전도 훈련으로, 그리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의 현장전도 및 간증 보고회로 진행됐다.

램네프처지에서 열린 오전 집회는 보스턴 연합찬양팀의 찬양에 이어 개회 김호성 목사, 환영사 김재열 목사(대회장, 뉴욕센트럴교회), 영상 메시지 황덕영 목사(안양새중양교회)와 장식진 목사(고문), 특별찬송 베다니감리교회, 기도 메시지와 합심 통성기도, 바디워십 유승연

‘초감정과 상처’ 주제, 강사 임양택 목사

글로벌뉴욕여목연 어머니기도회 7월 기도회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회장 권금주 목사)가 “기도하는 어머니는 행복합니다”란 표어를 걸고 매월 주최하는 어머니기도회 7월 월례기도회가 19일 오전 10시 30분 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에서 열렸다

마요셉 전도사(성령강림교회)의 찬양인도 후 안경순 목사 사모로 대표기도 나병자 목사, 특송 최은영 집사, 설교 임양택 목사, 합심기도 최건선 목사, 헌금특주 손소혜 집사, 헌금기도 김희숙 목사, 광고 권금주 목사, 축도 전희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금번기도회는 6월 기도회 세미나의 연속으로 임양택 목사(매밀리터치 상담스텝)를 강사로 ‘초감정과 상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세미나 내용.

인간관계 소통을 방해하는 초감정으로 인해 가족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초감정은 그 사람의 지난 삶 속에서 만들어진 감정으로 겉으로 드러난 감정 속에 숨어서 상대방의 마음 상태와 상관

없이 작용하며 초감정이 작용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기 어렵다. 물론 자기도 왜 그러는지 잘 모른다.

초감정이 작용되지 않고 가족의 마음에 공감하기 위한 기술을 흔히 ‘반영적 경청’이라 한다. 원리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읽고 그것을 그대로 공감하며 반영해주는 것이다. 혹 상대방 감정이 느껴지면 자신의 감정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주려는 태도가 우선 돼야하며 내가 너의 감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받아들이준비가 돼있다는 것을 알리는 대화법으로 자녀를 대하는 다섯 단계를 소개했다.

△1단계, 상대방의 감정을 포착하라. 내 감정을 인식하고 내 감정을 홀드(hold)하고 타인의 감정을 포착한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감정을 포착하라. △2단계,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라/표현하라. △3단계, 감정을 들어주고 이름을 붙인다. 감정을 정확한 단어에 담아 표현할 때 감정은 누그러진다. △4단계, 표현된 감정에 공감하라. △5단계, 스스로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주면 자녀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 이것이 사랑이다.

한편 8월 어머니기도회는 16일(수) 오전 10시30분 기쁨과영광교회에서 박상하 목사(파라코칭리더십센터 대표, 순천하늘교회 담임)를 강사로 열린다.

(기사제공: 글로벌뉴욕여목연)

자매(보스톤오펜해브교회), 헌금기도 이재성 목사(매릴랜드 은혜교회), 임팩트 전도훈련 김호성 목사, 축도 참가 강사 목사들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도 메시지와 합심 통성기도 시간에는 “미국 재부흥 운동(Revival for America)”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후원기 목사(버지니아올네이션교회), 김태백 목사(뉴욕총신교회), 안현일 목사(베다니감리교회), 정진호 목사(렘네프교회), 이성일 목사(내리감리교회), 박조수아 목사(보스턴오펜해브교회), 강덕식 목사(보스톤조이풀교회), 이재호 목사(보스톤 MIT교회), 나운주 목사(크로스커뮤니티교회), 오인수 목사(퀸즈장로교회), 이일복 목사(매릴랜드 세미한교회), 마크 박 목사(뉴욕센트럴교회), 신대열 목사(필그림교회) 등 13명이 각각 짧은 메시지를 전한 후 합심 통성기도가 이어졌다.

간단히 식사한 후, 오후에는 전도훈련 받은 대로 3인 1조로 맨해튼 미드타운 관광명소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ICM 임팩트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시작했다.

특히 퀸즈장로교회는 교회 전도 폭발팀이 참여했으며, 필그림교회는 15명의 찬양팀을 중심으로 거리에서 찬양을 하며 모여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거리찬양전도를 벌였다. 오후 4시부터는 다시 램네프교회에 모여 간증하며 마무리했다. 이날 영국에서 온 폴 송 목사(영국목양교회)의 간증도 있었다.

김호성 목사는 “전 교회와 성도가! 전 복음을! 전 도시!”라는 전도 슬로건을 소개하며,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라며, 열매는 도덕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믿는 사람들은 다 전도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며 ICM은 미국을 깨우는 운동이며, 미국에 진 복음의 빛을 갚는 운동이며,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자는 운동”이라고 소개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 주최 “창조과학과 관련한 건강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잃어버린 수소(H²)를 찾아서” 뉴욕목사회 주최 “창조과학과 관련...” 강사 빌리김 장로

뉴욕목사회(회장 김상태 목사)가 주최한 “창조과학과 관련한 건강세미나”가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뉴욕효신장로교회당에서 열렸다.

“잃어버린 수소(H²)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빌리김 장로(캐나다 동신교회)를 강사로 열린 세미나 시간에 앞서 회장 김상태 목사는 “이번 세미나는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강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김 장로는 지난 7년간 수소에 대해 연구했다며 건강회복 사례 간증들을 소개했다.

김 장로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설명하고 “올바른 수소하늘을 찾아주면 하나님이 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라며 “수소가 답”이라고 역설했다.

연소할 때 H²O가 아닌 수소 1개를 뺀 HO(OH)가 되며 하이드로시레디컬을 없애는 것이 해결책인데, 수소는 치료제나 약이 아니고 몸상태를 이리 상태로 돌려주는 것이며, 문제는 수소가 수십 초 만에 날

아가 버린다는 것이다. 또 항산화제의 문제는 사이즈가 커서 세포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포보호막을 통과하는 것이 수소인데 수소환전주기 구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수소에서 나오는 나쁜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가? △수소를 얼마나 오래 보존할 수 있는가? △ORP측정기로 마이너스가 돼야 한다. 또 이외에 복합살균수(중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장로는 노아 이전에 인류가 장수한 이유에 대해 ①스트레스 ②과식 ③음식물 종류 ④환경 ⑤복수심(증오, 원망, 불평) 등을 설명하며 수소가 수명을 연장하지는 못하지만 건강을 준다고 강조했다.

또 김 장로는 중국에서의 임상실험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중국의사협회 초청으로 세미나를 인도했으며 앞으로 중국에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중국에서 얻은 수익은 현지 신학생을 양성하고 후원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제새마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0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08:00 새벽기도회: 오전 05:30 금요기도회: 오후 08:0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nysy04gc@yahoo.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www.nyget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찬양: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moakyang.org	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침례: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fkcby.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lee@yahoo.com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운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아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http://www.cpcofny.org Tel. (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mioch.com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EM영아예배: 오후 1:30 최요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http://nydcchurch.com/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수, 목)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주미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초종기도: 오후 5:00 영아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hany.org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뉴욕제새마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관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종교기도회: 아침 7:40 영,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선교회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 스페인어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huk@hanmail.net Cervantes NC,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주일4부예배: 오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22개 소속 교단 전체 참여토록

교단장회의, 한기연 동참 독려키로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24일 서울 서초구 웨라튼서울팔래스강남 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22개 소속 교단 전체가 한국기독교연합회(한기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를 이끌고 있는 교단장회의는 지난 17일 한교총과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을 통합해 한기연을 창립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교단장회의는 “한교총을 이끌고 있는 15개 교단이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한기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교단장회의 소속 22개 교단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기연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7·7정관을 기본으로 하되 1000개 이상 교단장으로 구성된

상임회장단을 구성해 5년간 대표를 추대한다”면서 “한기총도 임시총회를 통해 정상화되면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단장회의는 이 자리에서 통합논의를 위해 이성희(예장통합) 김선규(예장합동) 총회장과 전명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을 실무대표로 선출했다. 이들은 한교연측 고시영(예장통합) 황인찬(예장개혁) 석광근(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목사와 통합 논의에 들어간다.

양측 실무대표 6명은 25일부터 통합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한교연 사단법인의 정관·이사 변경 문제, 한교연 직원승계, 사무실 사용, 한교연 회원단체 인정여부 등 핵심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주요교단 대표들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헌법개정안에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교단장 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과 김원평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대표는 “만약 헌법 제11조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 지향’이 삽입된다면 차별금지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지닐 것”이라면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양성평등문구를 동성애 등도 포함하는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시도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단장회의에는 김원교 예성 총회장, 이재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 김명찬 예장한영 총무 등 한교총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교단 대표들도 참석했다.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목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정통 기독교가 성경해석을 문자주의로 하고 있어 인권에 대한 이해도가 천박하고 무지하며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한다”면서 “정통교회가 복음을 왜곡하고 있어 회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단대책위원장들은 “이런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임 목사가 동성애를 조장하며 쿼어축제에 참가해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기 보단 그들의 동성애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만약 이단대책위원장들의 공동보고서가 채택되면 기독교대한나눔의성회 여의도순복음을 제외한 주요교단이 임 목사에 대한 이단성을 확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임 목사가 소속된 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연합회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임 목사가 가정과 교회,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힘써온 여성 목회자”라면서 “신앙양심의 자유, 약자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일반적으로 이단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이단성 시비 종단을 촉구한 바 있다.

화와 관계 복원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 북한 고립을 위한 고강도 대북 제재를 밀어붙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간 정책의 차이를 파고드는 김 위원장의 전략이 눈에 띈다고 분석했다.

또 지령문에서 드러난 북한의 접근법은 북한 정권이 끊임없이 추진해 온 전형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 실리적 외교를 지향하며 남한 정부의 참여를 봉쇄) 대외 전략의 일환으로 한·미 간 대북 정책 균형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평화협정은 북한과 미국이 당사국이고 남한은 체결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문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등 한·미 간 평화협정을 의도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에 굴종하고 있다는 식의 비난을 이어왔다.

종교개혁 500주년 장로교 심포지엄

합동·통합 양 교단 교류·협력 다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과 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은 19일 서울 종로구 승동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장로교 심포지엄’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종교개혁자들처럼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힘쓰자’고 뜻을 모았다.

‘한국교회를 향한 예장합동과 통합 교단의 책무’에 대해 발표한 박용규 총신대 교수는 “한국 장로교는 평양대부흥운동을 이끌어냈고 교회의 발전과 해외 선교의 기적을 이뤘다”며 “교회위기의 시대라 불리는 현재 양 교단이 힘을 합쳐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교회의 부흥을

선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민족과 교회 전체의 당면과제인 남북통일을 위해 두 교단이 협력해야 한다”며 “북한지역에 교회를 재건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이단과 동성애에 대한 대처’와 ‘지속적 학술 교류’도 주토했다.

논찬을 한 임희구 장로회신학대교수는 “예장합동과 통합은 평양 장로회신학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짜음 이루는 가지’라며 “소속 교회 간 강단교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예배에 목마른 원로목회자들...

석 달 만에 40명→457명 출석

“주여, 한국교회를 지켜주소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원로목회자들이 고개를 숙였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에서 열린 한국원로목자교회(한은수 목사) 수요예배. 한은수 목사와 은퇴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윤리적 타락, 지나친 외형적 교회성장 집착, 물량주의, 개교회주의에 대해 반성했다.

한국원로목자교회는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이사장 임원순 목사)이 지난 4월 12일 서울 종로5가목자카페에 설립한 교회다. 원로목회자를 위해 예배공간과 쉼터와 다과를 무료로 제공하고 섬기려는 취지였다.

첫 예배는 그야말로 ‘작은 예배’였다. 40명이 모였기 때문이다. 그

런데 매달 100여명씩 늘어 79㎡ 남짓한 목자카페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배 규모가 커졌다. 급기야 인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으로 장소를 옮겼고 지난달 8일 287명, 14일 295명, 21일과 28일 각 312명, 7월 12일 457명 등 예배 인원이 크게 증가했다. 19일 예배엔 450명이 참석해 석 달 만에 11배 부흥 기록을 남겼다.

교회는 동아리 모임도 마련했다. 원로목회자 태권도 시범단에 이어 성가대와 기악연주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다음 달 9일 서울 대학교에서 시민에게 ‘시작’이라고 쓴 전단과 선물을 제공하는 ‘산타봉사 캠페인’도 벌인다.

매주 수원에서 예배에 참석한다는 오세영(72·화성서신교회) 원로목사는 “갈데없는 은퇴목회자들이

“크리스천답게 살겠습니다”

광주지도자 홀리클럽 검사장·前 의원 등 100여명 다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광주 지역 교계 및 정·관계 인사들도 ‘나부터 작은 실천 캠페인’에 동참했다.

광주 동구 무등로 금수장호텔에서 19일 열린 광주지도자 홀리클럽(회장 이정재 장로) 조찬기도회 참석자 100여명은 각자의 실천과제를 A4용지 크기의 ‘나부터 보드’에 적는 뒤 “나부터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2007년부터 매주 수요일 아침 7시에 조찬기도회를 열고 있는 광주지도자 홀리클럽은 크리스천 지도자들의 기도모임이다. 지역 기관·

단체장과 목회자 및 평신도 등 3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도회에는 광주지검 김희재 검사장과 구본선 차장, 전승수 형사1부장 등이 참석했다. ‘나부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쓴 김 검사장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교대 총장을 지낸 이정재 회장은 ‘나부터 본을 보이겠습니다’라고 쓴 뒤 “이웃에게 잘하라고 말하기 전 나를 먼저 돌아보겠다는 의미”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선언했다.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경천

이성희 총회장은 ‘가나안을 향해가는 개혁교회’(수3:1-6)를 제목으로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다”며 “한국교회는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성결해져서 실추된 영광과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설교했다.

참석자들은 ‘예장합동·통합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며 “한국의 장로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돼 세속의 가치를 이겨내고 나눔과 섬김, 회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김선규 총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기점으로 두 교단의 교류와 협력이 증진되고 힘을 합쳐 대사회적 개혁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인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교회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면서 “그럼에도 노(老)병사들은 변함없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며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원로목회자들에게 은퇴 후 복지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 후임 목회자가 자유롭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섬기던 교회를 떠나고 있다.

15년 전 은퇴한 박모(86) 목사는 고물, 폐지 등을 주워 생활비에 보탠다. 한 달에 15만원으로 지낸다. 김모(78) 목사도 사정이 딱하다. 재단이 두 달에 한번 제공하는 쌀 20kg과 생활용품, 정부보조금 등으로 생활한다.

재단은 매년 ‘원로목회자의 날’을 개최하고 목자카페와 사무실, 예배공간을 제공하는 등 원로목회자들을 섬겨왔다. 원로목회자 회관을 건립해 수요예배 처소와 복리후생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장로도 ‘나부터 아나바다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썼다. 김 장로는 “기독교인이 아껴 쓰고 나눠 쓰며 바쁘고 다시 쓴다면 우리사회가 밝아지고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라고 쓴 김훈중 광주 비아교회 장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경대로 살면 한국교회의 고질적 병폐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에는 황정수 전북 무주군수가 릴레이에 참여해 ‘나부터 웃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나부터 작은 실천 캠페인은 국민일보와 CBS, 23개 주요교단이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범교계 및 사회 운동이다.

도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조목사님이 절대금요일로 무장하고 성령충만한 종이였기 때문”이라면서 “치유와 회복, 절대금요일의 복음을 주변 사람에게 전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자”고 제안했다.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지난 17일부터 개최하고 있는 ‘제29회 아세아성도 방한성회’에서 아시아 성도들은 새벽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 등 한국교회 영성을 전수받고 있다.

‘육체영생 신인합일’ 이라더니...

신천지 교주 이만희 척추수술 받고 입원

25일 이씨가 입원한 병원 6층 611호 특실 앞은 신천지 신도로 보이는 청년 2명이 철통경계를 서고 있었다. 취재사실을 눈치 챘는지 청년 한 명이 따라붙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을 보는 척 했지만 힐끔힐끔 기자의 눈치를 봤다.

교주 이씨는 지난 18일 이곳에서 수술을 받았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추관 및 추간공이 좁아져 요통 및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그는 2010년에도 이 병원 S원장에게 같은 수술을 받았다. 고령의 나이에 질병이 재발한 것은 이른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하는 경기도 과천시 아닌 광주까지 내려갔다.

감시를 피해 1층 로비로 갔다. 갈

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지나갔다. “어, 엄마 난데...”라고 말했지만 스마트폰 화면에는 녹화중임을 알리는 붉은색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자리를 옮겼지만 이번엔 40대 남성이 맞은편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 카메라로 기자를 촬영했다.

이번엔 50대 여성이 상의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은 채 지나갔다. 맥박을 재는 척 하더니 화장실까지 따라와 대뜸 “어디 계시는 분이냐”고 물었다. 이어 신천지 책임자로 보이는 박모씨가 다가왔다. 그는 “어떻게 광주까지 왔느냐”면서 “병원에 신천지 신도가 많이 있다고 보면 된다. 기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많이 오고 있다”고 했다.

S병원 관계자는 이씨의 입원여부에 대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척추관협착증은 회복속도가 개인별로 다른데 빠르면 2주, 길면 2개월 걸린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현욱 신천지대책전국연합 대표는 “신천지 핵심 신도들은 이씨를 지칭하는 ‘이긴자’가 영생불사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는 아를 수도 있다고 둘러댄다”면서 “하지만 상당수 신도들은 이씨의 수술과 입원에 저장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천지는 이렇게 가르친다. “14만4000명을 채울 때 죽지 않고 육체영생하며 순교자들과 신인합일해 왕 노릇을 할 수 있다.” 척추관협착증을 앓고 있는 ‘약속한 새 언약의 목자’ ‘이긴자’ ‘보혜사’가 정말 육체영생 하는지 판가름날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김정은 “문재인정권이 기회...美와 담판 짓자”

北 재외공관 지령문 통해 평화협정 체결 협상 독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재외공관에 보낸 지령문을 통해 문재인정부 집권 기간에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실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7~8일 독일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던 당시 해외의 북한 공관에 긴급 지령문을 보내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평가받는 ‘화성 14형’ 시험발사 성공 이후 발송된 지령문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과 담판을 지으라”고 지시하며 미사일을 수단으로 미국

에 심리적 압박을 가할 것을 종용했다.

아사히신문이 북한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지령문의 내용을 보면 북한 정권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 개발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한 뒤 궁극적으로 북·미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문재인정권이 지속되는 기간이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라며 “호전 세력이 소란을 피우기 전에 통일 과업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한·미 간 대북 정책 공조의 빈틈을 파고들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아사히신문도 전형적인 남북 대

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실 관계자에게 쿼어축제에 참여하는 미대사관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유관제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은 “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면담 때 ‘한국의 쿼어축제 때 미대사관이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미대사관의 쿼어축제 불참이 이와 관련된 게

2년 연속 쿼어축제에 참여했던 주한 미국대사관이 올해 불참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 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는 19일 ‘이번 쿼어축제 때 부스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국민일보의 질문에 대해 “특정 축제에서 부스를 설치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대사관의 지속

적 성소수자 인권 지지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면서 “주한미대사관은 전반적인 인권 정책의 일환으로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대사관은 ‘쿼어축제 불참이 지난달 27일 미국을 방문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실 관계자를 만나 미 대사관의 쿼어축제 참여를 비판한 것과 관련돼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달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미국 워싱턴DC 힐튼호텔에서 ‘한미 기독교지도자 오찬기도회’를 갖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은 문화 제국주의적 태도로 더이상 부도덕한 성문화를 한국에 이식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주한미대사관은 2015년부터 2년 연속 쿼어축제에 부스를 설치했으나 올해는 무지개 플래카드만 벽면에 부착할 뿐 참여하지 않았다.

주한미대사관은 서울과 대구에서 개최된 쿼어축제 때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동성애자부모모임 책자 발간에 후원하는 등 우회적 방법으로 동성애자 단체를 지원해왔다.

교토소 선교칼럼 (26)

교토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재소자들의 간증이 가져다준 변화

이순덕 권사님은 콜로라도에서 한 인기독교회를 섬기시며 변화프로젝트 문서선교를 후원하고 계십니다. 이순덕 권사님 또한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를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특별히 이순덕 권사님은 중보 교도소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로써 재소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다른 분들에게도 교도소 선교를 후원하도록 격려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을 알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기전 2008년, 한인기독교교회에서 선교현금을 주시고자 제가 사역하는 교도소를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교회나 자신들의 성함을 밝히지 않고 무명으로 현금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 후에 저는 그분들이 한인기독교교회에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교회를 방문하므로 그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니 한인기독교교회를 방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순덕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은 저를 중보 기도회 회원들과의 점심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난 이 권사님께 제가 크게 감명을 받은 이유는 그분의 중보기도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섬기시려는 충성스러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제가 권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므로 교제가 시작되었으며 권사님도 재소자들이 쓴 간증을 읽어보시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며 그때부터 변화프로젝트 교도소 문서선교에 후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순덕 권사님이 교도소 선교에 동참하며 나누신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변화”

세월의 흐름은 막을 길이 없는지 저도 모르게 78세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의 80여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길이 어느 곳 하나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하면서 성적학대, 자살충동, 마약 등에 연루 되어 범죄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재소자들의 간증을 읽으며 그들이 보통 평범한 생활을 하는 환경 속에서 고통 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지금까지 그들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냉랭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 살다가 범죄를 저지른 그들, 그리하여 교도소에까지 오게 된 재소자들을 이해하게 되니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도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라도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불행했던 재소자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간다면 그들의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교도소 선교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43절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양 옆에 두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예수님을 믿으므로 구원을 받았습니 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죄수도 사형을 받기 전까지는 교도소에 재소자였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코 그들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갇은 모욕과 멸시천대를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재소자들 모두를 사랑하시며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여종 이영희 목사님을 택하셔서 그 종을 통하여 교도소 안에 놀라운 영적 부흥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재소자들의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다고 있습니다. 이 교도소 문서선교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후원자들,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복음의 능력으로 재소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기적의 역사가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순덕 권사

이순덕 권사님은 기도로서 저에게 큰 힘을 실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 서 교도소 문서선교 사역을 통해서 동역자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yonghui.mcdonald@gmail.com

선교 편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 하나이다”(시편 63:1).

투루카나 부족을 위한 추수 전도대회

절대적 미전도 부족: 투루카나 부족(Turukana Tribe)의 복음화를 위한 추수 전도대회(Harvest Crusade)가 지난 6월 둘째 주간에 투루카나 부족 심장부인 로드와(Lodwar)에서 있었습니다.

이 투루카나 부족은 케냐의 남아있는 절대적 미전도부족 가운데 하나로 뜨거운 준 사막 지역과 광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식량과 물 부족으로 인해 정부와 유엔식량기구 등 선교단체나 NGO 구호기관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부족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시편 63:1). 이번 투루카나 추수 전도대회의 표어입니다. 말씀대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Share International에서 기관과 함께 복음 전도집회를 하며 식량 구호 사역도 함께 실시하였으며, 오는 8월에 카쿠마(Kakuma) 난민 수용소 사역과 함께 식량 구호 사역도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에 필요한 재정과 돕는 인력들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사역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맛사이 롤로로필 성소교회가 완공되어 헌당식을 한 후 그곳에서 약 30Km 떨어진 복음의 불모지인 키메록(Kimelok) 지역에 이번에 새롭게 교회가 건축되었습니다. 저희와 동역하고 있는 윤석재 선교사님의 파송 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8일(주일) 이 지역 국회의원과



군수 등 지역 원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이 지역은 화전민촌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또한 교회 헌당식과 더불어 “생명의 물-예수님의 샘물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완공되어진 우물 헌정식이 함께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웠던 이곳에 이제 생

케냐

18-21 May. KPCUSA Assembly
미주합동 총회

29-31 May. GMS Council Meeting
선교사회 확대임원회

13-15 June. Turkana Ministry
추수 전도대회
식량구호 사역

18 June. Dedication Service
키메록 교회/우물 헌정

5-10 July. Prayer Seminar
기도세미나

21-25 Aug. Harvest Crusade
추수전도대회

18-22 Sep. Leadership Training
지도자 훈련

명의 물, 생수의 물이 공급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와 함께 후원하여 주신 한국의 샘물교회(남무섭 목사님)와 김혜리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역이 복음 개발 사역으로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케냐 선거일

오는 8월 8일은 이곳 케냐의 선거일입니다. 5년마다 갖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국이 많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선거 일어난 폭동과 살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데 많은 외국인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정국이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인중 선교사 드림
missionkenya@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세백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mvchurch.org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30 토요세백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세백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오 예 배: 오후 8:00 영아, 유치, 유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주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00(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eattle.org	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백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mv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청야: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lrkjcs.org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h.org/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해(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아침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킬런노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주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세백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아침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세백기도: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요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오 예 배: 오후 7시 세 백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8675, Fax.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c.org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청년예배: 오후 7:45 수요예배: 오후 8: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브라질 한국인 선교역사 (끝)



강성철 선교사



3. 브라질 한국선교의 미래전망

1)한국인 선교역사 및 선교신학의 정립과 지도자 육성
최근에 GP선교부에서 2016. GP 선교사역백서(2016.5.13)를, 코스 타국제본부에서 Kosta 30주년 책자를, 세계밀알 Missao Miral do Brasil을 발간하면서 지나간 발자취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주님의 지상명령 완수와 하나님나라 완성의 미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진행된 한국인 선교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뿐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

3)이민선교

한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사랑을 겸비한 평신도들이 많이 있음을 본다. 자녀들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살기를 소원하면서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실력과 경험 이 풍부한 시니어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이들에게 선교를 목표로 삼고 자신들의 주 특기를 살리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선교지를 일케를 뿐 아니라 일하

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교단과 선교부와 신학교는 이들에 대한 정책이 없을 뿐 아니라 무지하고 잔인하다. 어떠한 혜택도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상처를 주고 있다.

남미 특히 브라질을 비롯한 포어권 지역선교에 다음세대 지도자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 이들에게 기대를 걸어도 좋다. 이들은 언어와 문화충격에서 벗어난 실력 있는 일꾼들이다. 대부분 4개국 언어를 할 뿐 아니라 4차원 세계에 익숙한 인재들이다.

각 교단에서 시간과 물질을 투

전통 있는 좋은 학교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선교사로 자원하여 선교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받아 현지에 도착하면 누구든 선교지 현장의 상황이 너무 달라 문화충격을 받는다. 열정은 있지만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감사한 것은 일찍이 브라질 땅을 밟은 한국인 초기 선교사들이 너무도 훌륭하게 본이 되는 선교를 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남겨 놓았다는 사실이다.

저들은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의 주역인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역자들을 못지않게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며 쓰여졌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일본국 조선인 신분증을 가지고 브라질에 입국하고 국적이 없는 한국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안고 살았지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멘토의 역할을 하였고 초대교회와 같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다.

이제 한국교회와 한국인 선교

통합된 선교정책으로 중복투자 막고 교단/선교사 갈등 조정 선교지 재배치

세계선교현장 선교사들 현장경험 학문화 작업 및 한국교회 공유 필요

언어와 문화충격 벗어난 2세 사역자 세워 맘껏 사역하도록

지도자를 양성하며 가르친 신앙과 선교신학을 바로 정립하여 남미 땅에 당면한 숙제인 지도자 육성에 바른 신학을 신학교가 가르칠 수 있게 해야 한다.

2)통합된 선교정책과 전략을 세워 중복투자 조정과 선교사 재배치

85년 이후 각 교단과 선교부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브라질에 들어왔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쌍파울로 위성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120가정 약 240여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파송받아 들어왔지만 쌍파울로와 아마존 지역에 모여서 사역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 동네에 뿌리를 내리고 20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지만 침체된 상태에서 턱없이 부족한 선교비 걱정과 함께 아무런 대책이 없는 노후를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교정책과 전략의 부재가 빚어낸 현상이며 통합된 선교정책을 세워 중복된 투자를 막고 큰 그림을 그려 교단과 교단, 선교사와 선교사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운 선교지 경험을 살려 새로운 선교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므로 자급자족하며 선교사를 돕고 지역을 살리는 이민선교가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선교정책이라 생각한다.

한 지역에 5가정이 함께 들어가 공동체를 이루어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수익성 사역을 개발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과 현지인 교회들을 지원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4)다음세대 지도자를 위한 훈련 그리고 방향제시와 구체적인 대안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땅에는 선교사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마다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찾고 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다. 시니어 선교사들이 사역을 이어갈 후임자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1.5세, 2세를 가운데 선정된 일꾼들이 한국과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장애가 있다. 첫째, 경제적 부담이 크고 둘째,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는 문제 또한 만만치 않다. 셋째, 졸업하기까지 기간이 길 뿐 아니라 대부분이 가정을 가진 이들이

자해서 현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이들의 경제적 짐을 덜어줄 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한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풍부한 화평을 즐기면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므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을 돕고 선교현장의 필요한 지도자들을 배출하기를 소원한다.

이 일을 위해 아태아대학원이 기획하고 시작한 것은 참으로 이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라 생각한다.

나가면서

좋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린다.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강사로 선정해주신 제 7회 KWMP 여성선교사회(회장 배정선)에 감사를 드린다. 더욱이 이 자리에서 브라질 한국인선교 역사를 소개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교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역사적인 자료를 남길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역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들은 선교현지의 풍성한 경험 이 가진 선배 선교사들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 세대를 살아 온 세계 선교현장의 수많은 선배 선교사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저들의 현장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학문화하는 작업을 펼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후배 선교사들과 한국교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야 한다.

한결을 더 나아가 한국인 신학교이 신학교에서 중심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선교학 강의는 오래된 서구 선교이론을 중심한 전통과 역사를 강조하는 주입식교육만을 실시하지 말고, 한 학기는 선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답을 경험 이 풍부한 선교사들과 함께 찾는 선교교육이 되어야 한다.

전 세계 파송된 선교지 땅을 밟으며 문화 및 선교체계를 하면서 지역탐방 리서치를 하면서 지역특성 문화상품도 구입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나누고 서로가 멘토가 되어 주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체험하기를 바란다.

kangsungchuel@gmail.com

성경 원문 번역자들의 고충

성경 원문의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 있다. 최근 크리스천투데이가 성경 원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번역가들의 고충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번역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 지식과 시대와 문화의 차이 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매체는 최근 세계적인 기독교출판사 비블리카(Biblica)와 새국제성경(NIV·New International Version)의 영국 출판사가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성경번역위원회(CBT·Committee on Bible Translation) 토론회를 취재해 보도했다. CBT는 NIV의 번역자 모임이다.

CBT 회원들은 두 가지 번역 기술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문자를 표현 그대로 옮기는 직역이다. 원문과 번역문을 일대일로 대응해가며 작업한다.

두 번째는 원문의 독자가 느낀 점을 번역문의 독자로 느낄 수 있도록 본문과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눈을 본 적 없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눈처럼 하얀’이라는 표현보다는 ‘목화처럼 하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식이다. 이는 성경 본문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를 높인다.

ESV(English Standard Version)은 첫 번째 번역 기술을, NIV는 두

번째 번역 기술을 택했다.

이들은 성경 번역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자체도 어려운데 다양한 배경지식까지 알아야 하니 당시 역사와 사회학, 신학까지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 단어 뜻이 달라지는 문제도 있다. 개별 단어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문화적 차이를 녹여내야하는 어려움도 있다.

CBT 회원들은 “독자에게 과거의 상황을 이해시킬지, 과거의 단어를 현재의 쓰임으로 바꿔 설명할지 선택해야 한다”면서 “한 나라의 배경과 시대 뿐만 아니라 대중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따른 이해 정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번 번역을 끝냈어도 수정 작업은 계속된다. 달라지는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성경을 재검토해야 한다. 한 회원은 “지금까지 1000개 이상의 구절을 고심 했다”면서 “여전히 더 나은 번역을 위한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수정도 쉽지 않다.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투표에 부친다. 회원의 70% 이상 동의해야 수정된다.

한 회원은 “성경 본문의 필자들은 영감에 따라(inspired) 성경을 필사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땀을 흘리며(perspired) 이를 번역한다”고 재치 있게 말했다.

《2면에서 계속》

무언가 창의적인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는 학생이 신청해 프로젝트에 따라 150달러에서 많게는 1,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관련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로 작동했는지는 심사하지 않는다. “실패 펀드” 보도 자료에는 “학생들이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돕자는 취지”라고 쓰여 있다.

스미스 대학교의 학과장이자 학생 생활 담당 부총장인 도나 리스 커는 말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모두가 어렸을 때 실패에 관해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힌다고 생각해왔어요. 야구 타석에 들어서는 누구나 삼진을 당할 수 있고, 학생회 선거에서 당연히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 거라고 생각했죠. 18살이나 됐는데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학생이 어디 있겠냐고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실패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에게서 빼앗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많은 대학교가 실패란 무엇인가에 관해 학생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함으로써 일종의 교육을 통한 치유 혹은 치유를 위한 교

육이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스미스 대학교의 시몬스는 소녀들의 자존감에 관한 책을 두 권 썼고, 내년에는 세 번째 책인 “지금 너의 모습으로도 충분해(Enough as She Is)”를 펴낼 예정이다. 그녀는 대학들이 좋은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기준을 새로 세우고 있다고 진단한다.

“대학들은 학생이 졸업논문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량 미달이라는 평가를 듣고도 주저앉지 않고 보란 듯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요즘은 직장도 자주 옮기고, 하는 일도 자주 바뀌며, 단기간에 처리하는 프로젝트 위주로 일이 진행되거나 프리랜서, 소규모 스타트업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인생의 기술이랄까요.”

대학교에는 낮잠 전용 간이침대 혹은 소파도 있고, 심리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작은 동물원도 있다. 이제 여기에 실패하는 법까지 가르친다고 하니, 지난해 “사이콜로지 투데이”가 표지 제목으로 던졌던 질문을 여러분도 하게 될 것이다. (계속)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삶과 신앙 |

멕시코 국가대표양궁감독 이 용 장로

“My thoughts and God’s thoughts”

지난 7월 12일, 마운틴 벨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GLDI(세계 지도자훈련원/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Institute) 훈련장소를 방문했다. 이곳에는 영적으로 거듭난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50여명의 대학, 대학원생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40일 동안 함께 훈련을 받고 있었다.

40일 동안 그들은 스개인적인 부흥과 비전의 발견, 스성경적 진리와 세계관, 스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리더십, 스세계적 안목을 가진 리더십, 스효과적인 인생관리/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 스세계를 변화시키는 전략 등의 주제로 강의를 들으며 글로벌 리더로서 준비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훈련과정 중, GLDI는 이웅 장로(멕시코아름다운교회/국가대표양궁감독/글로벌 사업가)를 초청했다. 이날 이웅 장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시하고 청년들에게 비전을 품도록 도전했다.

이웅 장로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멕시코 국가대표 양궁 최초로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내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었고 지금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위해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멕시코에서 성공한 CEO로 손꼽히고 있다.

다음은 이웅 장로가 GLDI에서 훈련생들에게 들려 준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이웅 장로는 21년 전 멕시코 양궁코치로 멕시코에 발을 디뎠다. 당시 멕시코 양궁은 50-60위 정도로 실력이 뒤져있었다. 이것을 만회해 보고자 멕시코 정부는 한 국감독을 청빙했고 한국감독이 오면 금방 금메달을 딸 것 같은 착각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웅 장로는 어린이들을 발굴해 선수로 키우기로 작정하고 차분히 선수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결국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자랑스런 은메달과 동메달을 거머쥔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웅 장로가 길러낸 선수들이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대회 시작 전, 5분간의 대기시간이 있다. 그 시간에 이웅 장로는 어김없이 선수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곤 한다. 뿐만 아니라 연습에 임할 때도 기도로 시작했다. 이렇듯 그의 삶속에는 늘 기도가 떠나지 않았다. 강의에 앞서 런던올림픽 영상을 관람케 한 이 장로는 “런던올림픽에서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일”이라고 그날을 회상하며 간증을 시작했다.

런던올림픽을 위한 기도는 4년 동안 이어졌다고 한다. 올림픽을

위해 아내 이영숙 권사는 4년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며 기도의 일군들을 모아 달라고 간구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세계 속에 흠어진 지인들을 기도의 동지로

모아주셨고 함께 기도에 전력했다. 그때 이 권사에게 특별한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메달 두 개를 따리라’는 확신을 갖고 선포했다. 함께 기도하던 이웅 장로는 내심 남자 단체전과 남자 개인전에서 큰 기대를 품고 준비했다. 사실 남자 양궁선수들의 실력은 손색이 없었기 때문이다.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이 권사는 호텔방에 머물며 오로지 기도에 올인 했다. 그러나 막상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이웅 장로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

고 말았다. 그렇게 자신 있던 남, 여 단체전과 남자 개인전에서 줄줄이 쓴맛을 본 것이다. 이제 현실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웅 장로부부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 만약 메달을 못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쩌나 하는 마음과 함

께....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웅 장로의 생각과 달랐다. 하나님은 개인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간섭하셔서 그들에게 은, 동 메달을 걸어주시며 멕시코 전 국민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마지막 결승에서 한국 선수와



GLDI(세계지도자훈련원)에서 자신의 삶과 신앙의 간증을 들려주고 있는 멕시코 국가대표양궁감독 이웅 장로(오른쪽).

만났습니다. 그뻔 정말 맘이 편했지요. 저도 좋고, 이겨도 좋다는 마음이었죠. 그때 만약 멕시코가 금을 땀다면 맡겼 기뻐하고 행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금메달을, 멕시코가 은메달을 땀을 때 정말 맡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라고 당시의 소감을 되짚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

하나님은 이웅 장로를 성공한 CEO로도 사용하셨다. 그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사업을 위한 기도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현재 멕시코 국제공항의 모든 광고 매체를 소유하고 있고, 멕시코 소나로사 거리에 4층 건물로 된 카페 Coffee Kkot(커피캣) 1호점을 운영하고 있다. 얼마 전엔 2호점도 개장했다. 내년쯤엔 또다시 3호점을 개점할 예정이다.

이 카페는 멕시코 뿐 아니라 미국에도 선보인다. 7월 말이면 LA 한인타운 6가와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체프만 몰에 있는 카페 Coffee Cielito(푸른하늘)가 오픈레이드돼 ‘Coffee Kkot 1호점’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2호점은 텍사스 세워질 계획이며 Coffee Kkot의 모든 수익금은 전액 선교비로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이웅 장로는 또 다

고 그저 한국 음악을 즐기고 있다”며 활짝 웃는다.

이웅 장로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있다. 청소년센터를 건립해 청소년들이 맡겨 그들의 꿈과 신앙을 키울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것. 이를 위해 이미 건축이 시작됐기에 곧 실전에 옮겨질 것이라고 귀띔한다.

이제 이웅 장로는 멕시코 사업가로, 국가대표 양궁감독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한국인이다. 호칭 또한 장로, 감독, 사업가 등 많은 칭호가 있지만 여전히 그는 ‘장로’라는 칭호가 제일 좋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성공한 CEO로 평가받기까지 그의 사업이 평탄치만은 않았다. 그에게도 위기가 있었다. 3년 전쯤 멕시코 경제가 바뀌며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 왔을 때, 아내는 DTS(예수전도단)훈련에 임할 것을 권했다. ‘나처럼 바쁜 사람이 어떻게 5개월씩 훈련을 받느냐?’고 처음엔 거부했지만 곧 무릎을 꿇고 사업도, 양궁감독도 잠시 놓고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다. 멕시코와 LA를 오가며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보고 주님을 찾을 때 받은 말씀이 이사야 55:8-9이라고 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훈련 4개월쯤 지났을 때 하나님은 멕시코 올림픽 조직위원장과 만나게 하셨고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시 사업이 안정세를 이룰 수 있게 인도하셨다. 이 일을 겪으며 이웅 장로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음을 깊이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끝으로 그는 “운동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종의 삶을 살고 싶다”며 훈련원에 모인 청년들에게 “다니엘처럼 뛰어난 믿음의 리더들이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강단을 떠났다.

(이성자 기자)

21년 전 양궁코치로 멕시코 입국...2012년 런던올림픽서 열매 맺어
글로벌 사업가로도 성공...Coffee Kkot 체인점 LA, 텍사스 진출
사업위기 왔을 때 DTS 훈련 받아...청소년센터 건립 추진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은, 동 메달을 딴 멕시코 선수들과 이웅장로

른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한국콘텐츠 비즈니스다. 한국 웹툰, 드라마 등을 스페니시로 번역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것으로 젊은이들을 모으고 콘서트 중간에 CCM을 포함했다. 그들의 문화 속에 한국을 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빠른 시간에 이뤄지지 않겠지만 서서히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웅 장로의 비전이다. 지금 멕시코 Coffee Kkot에서는 CCM곡이 흐른다. “아직 Coffee Kkot에서 차를 즐기는 청년들은 한국가요인지 CCM인지 잘 모르

미국 교인들, 탈교단 현상 가속화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처럼 새롭게 시도되는 네트워 사역 역시 교단에 속해 있다. 실제로, Acts 29의 회장, 매트 체들러 목사의 교회(The Village Church)는 남침례교 교회다.

겉핥음은 또한 미국인들의 탈교단 현상의 도미노식 반응으로, 자신들이 특정 교단에 속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광의적 차원으로 소속돼 있기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2000년 이후, 미국인 중 남침례교인들이라고 밝힌 크리스천들이 8%

에서 3%로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자신들을 ‘남침례교인’라고 불리우기보다는 단순히 ‘침례교인’이라고 불리우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겉핥음은 말해준다.

따라서 특정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교회 이름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40개 교단에 가입하고 있는 미북침주의협회(NAE)에 속한

교회들 중 63%가 이미 자신들의 교단 색을 드러나게 하는 교회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2015년 CT는 “Leaving Baptist in Your Church Name Won’t Scare People Away”란 제하로 이러한 현상을 보도했다).

북침주의 진영 안에서도 1970년대 한창 들끓었던 카리스마틱 그리

고 Jesus People 무교단주의 운동(갈보리체플과 빈야드)는 “크리스천답게 살기”만을 강조했고, 주류교단을 “너무 나눠져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인들의 관심에 호응한 것이라고 올슨 교수는 바라본다.

마지막으로, 남침례교회를 포함한 주류교단의 역사적인 교인 감소에도, 하나님의성회 교단만큼은 전

혀 위축되지 않고 괄목할만한 교인 성장세를 최근까지 보여주고 있다. 2014년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하나님의성회는 남침례교회나 연합감리교회를 바짝 뒤따르고 있을 정도다. 한마디로, 무교단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다.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